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78호

Thursday, November 21, 2024 A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의 신구 권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래 2년9개월간 금기 시하던 미사일 사거리를 풀고 대인지뢰 공급까지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바이든의 '국제주의'와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경험 없는 젊은 강경 충성파를 외교안보 요직에 앉히는 데 불안감을 느낀 바이든 진영의 '알박기성 조치'라는 풀이까지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에도 그간 전술 지대지미

바이든, 미사일 이어 대인지뢰 공급 정전협상 전 '영토확장 업적' 굳히기
'중전 해결사' 원하는 트럼프, 반발 측근들 "새로운 전쟁 시작하는 느낌"
사일 '에이태컴스(ATACMS)'의 사거리 제한(최대 사거리 300km) 해지와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확전을 우려해서다. 특히 대인지뢰의 경우, 2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선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이다. 이처럼 본인의 소신까지 뒤집으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몰입하는 건 트럼프 정권 출범 전에 전황에 빠른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그레아 우크라이나가 정전 또는

중전 협정에서 몸값을 올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전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결론이 잘 안 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최대한 확보해야 협상을 통해 그나마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에이태컴스 미사일과 대인지뢰는 모두 쿠르스크 공방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진·박형수 기자
▶ 2면 '신구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한인 여성 기업가 '3000만불 기부' 화제 '코그노산트' 미셸 강 회장은 누구?

미국축구협회 사상 최대금액 기부
1981년 도미, 세계적 헬스케어기업 일궈
한미동맹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도 활약

SPECIAL STORY

워싱턴 한인 여성사업가 미셸 강(한국 이름 강용미, 65·사진) 회장이 미국 축구협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0만 달러를 여자 축구 발전 진흥기금으로 전액 기부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언론은 강 회장의 이같은 기부 결정을 '축구계 변혁의 씨앗'이라고 평가했다.
강 회장의 기부금은 향후 5년 동안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 선수 전문성 개발 및 강화, 여성 코치 및 심판 충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NN은 강 회장의 기부로 여성 축구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이 힘을 받아 현재보다 최대 12배 많은 선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 코그노산트를 창업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강 회장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NWSL(전미여성축구리그) 소속 축구단 '워싱턴 스피릿'의 공동구단주로 지난 2020년부터 활약하다가, 지난 2022년 구단을 완전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023년에는 프랑크 명문 FC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도 인수하며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 지원을 통해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여성 스포츠는 오랫동안 과소평가 속에 외면을 받아 왔다"면서 "여성 축구를 바라보는 기준을 경기장 안팎에서 끌어올리고, 여성 선수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가 '종자돈'이 돼 다른 기부자도 동참하길 바란다. 여성 선수들이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 거의 알려지

지 않은 미셸 강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셸 강 회장은 11·13대 국회의원으로서 소비자 및 여성 권익 신장에 앞섰던 고 이윤자 전 의원의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50년대 미국에 유학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강 회장 역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 "외향적이었고, 야망이 큰 아이였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강 회장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을 꿈꿨다. 오페라 가수, 프로 농구 선수, 교사 등 여러 가지 장래희망을 가졌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꿈은 없었다. 강 회장은 결국 무대나 코트, 교실이 아닌 비즈니스 세계를 목표로 삼았다. 미셸 강 회장은 1981년 서강대에 재학하다 유학길에 올랐다. "결혼 자금을 빌려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든 학비를 조달해 대학을 다니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한 강 회장은 "한국에서 계속 대학을 다니다가는, 학생 운동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
한국과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강 회장은 시카고 대학교 학사, 예일 경영대학원 공공 및 민간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세용 기자
▶ 3면 '미셸 강'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LEXUS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
1월 2일 종료

이것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착한 사람에게는 더 멋진 보상이 따라옵니다.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에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찾아보세요. 오픈는 지금부터 1월 2일까지, 일부 모델에 제공됩니다. 리본은 옵션입니다.

LEXUS EXPERIENCE AMAZING

©2024 Lexus, a Division of Toyota Motor Sales, U.S.A., Inc.

“북한군, 러 공수·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

10월말 1만1000명 쿠르스크 배치
사상자 발생 추정, 포로도 파악 중
북, 170·240mm 장사정포까지 수출
대가로 어떤 무기·기술 받을지 주의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받는 북한군의 모습이
라며 짧은 동영상 공개했다. (텔레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
속됐고, 이 중 일부는 쿠르스크 전선
에 투입됐다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보
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
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군단
(폭풍군단)이 중심이 된 파병군 약 1만
1000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
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께 쿠르스
크에 배치된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
다”며 “이들은 러시아의 공수여단 및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
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에 참여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지

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점령한
러시아 서남부 지역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북한군이 최전선에
참여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언론에
나온 사상자·포로·투항자 여부
에 대해선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어 “북
한의 무기 운용 병력도 같이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

다”며 “1만1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유
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선 지난 4일 최선
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을 “깜짝 만남”한 사실
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최 외무상이 체류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만나자
고 했을 정도였다”며 “국정
원의 분석 결과는 북한이



조태용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할 목적의 회
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전적 면담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직
접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
시아를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답방해 당시 김 위원장을
“귀빈”으로 칭하며 재차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추가
로 지원한 현황도 파악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최대 사거리 65
km)와 170mm 자주포(최대 사거리 55km)
는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서울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화
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

을 받아들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도
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로 러시
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를 기점으로 러
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교리’를 수정했다”며 “서방 세계를 향
해 ‘우리를 얹잡아 보지 말라’는 경고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미사일 발사가 미국
의 외교안보적 전략도 있겠지만, 정무
적 판단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며 “국
정원이 트럼프 신(新)정부와 바이든 현
(現)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참
관단 파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정보
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정
보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가 안보
를 위해 참관단 파견을 검토해볼 가치
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고 전했다. 김경재 기자

“우크라, 미국 에이태컴스 이어 영국 스톱새도 러 본토 첫 공격”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
지 순항 미사일 스톱새도로 러시아 본
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들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영국 정

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
응으로 스톱새도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이를 분쟁
의 확대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
사 블로거를 인용해 이날 북한군이 파

병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톱새도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컴스(ATACMS) 전
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

자 영국도 뒤따라 스톱새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
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 접경지인
브란스크를 향해 처음으로 에이태컴
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톱새도(프랑스명 스킴프)는 전투기
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반경은 250km에 달
한다.

▶ 1면 ‘신구권력’에서 이어집니다

쿠르스크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되면
서 기세가 오른 러시아의 공세를 차단
할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대인지뢰를 매설하면 러시아군의
진격을 더디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
당 지역의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이 1991년 걸프전 이후 한반도를 제외
한 지역에서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이나 ‘가치 외교’를 중요
시해 왔지만,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다
급해졌다”며 “더 심한 훼손을 막기 위

해 일정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주의를 강
조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반러시
아 전선의 구심점에 섰던 바이든이 퇴
임 전 자신의 ‘업적’을 확고히 하는 측
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 무
리수를 두고 있던 지적도 적지 않다. 대
통령직은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석권한 상황에서 향후 정쟁의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설상가상
러시아가 ‘핵 교리’를 고쳐 핵무기의 선
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등 확전
으로 불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가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다. 미 대사관 측
은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인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하
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장 트
럼프 진영에선 바이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울츠 하원의원
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이 같은 결정을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 악

화로 가는 사다리를 또한 계단 더 올라
간 것”이라며 “일이 어디로 향할지 아
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의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미사
일 사거리 해제와 관련해 X(옛 트위터)
에 “명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트럼프
의 강경파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
독일 대사도 “아무도 바이든이 정권 교
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
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치 그
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
과 같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썼다.
급기야 공화당 내에서 탄핵까지 거론

됐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
원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탄핵
가능한 범죄”라며 “바이든은 모든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적인 전
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
향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
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
며,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
을 달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상진·박형수 기자

워싱턴 날씨 (°F)

11월 21일(목) 51~37	22일(금) 43~40	25일(월) 63~50
	23일(토) 54~46	26일(화) 55~42
	24일(일) 57~44	27일(수) 49~3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VA 주립대학 “학비 전국 10위”

UVA 최고 3만달러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리지보드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4-2025 교육연도의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연평균 학비는 1만5660달러로 전국 평균 1만1610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버지니아보다 학비가 높은 곳은 9개 주에 불과했다.

플로리다 학비는 6360달러로 버지니아의 절반에 불과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장학금도 적기 때문에 졸업생의 학자금 융자액은 전국 4위였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졸업생 중 학자금 융자가 있는 사람의 71%는 학자금 융자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 등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대학(UVA)의 연평균 인스태이트 학비는 전공에 따라 1만9422-3만1203달러,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은 1만6720달러, 버지니아 텍은 1만5950달러, 조지 메이슨 대학은 1만543달러, 제임스 메디슨 대학은 1만4242달러였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는 3만9천달러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UVA의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는 최대 6만1천달러에 이른다.

매릴랜드의 인스태이트 평균학비는 1만3325달러,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는 3만1천달러였다. 김옥채 기자

“K컬처 확산에 앞장” 선다

콜롬비아 칼리지

콜롬비아 칼리지(총장 김광수)가 지난 18일 외교문화교류단체(CED) 주최로 열린 한국문화 소개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

행사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외교관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13개국에서 온 45명의 외교관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콜롬비아 칼리지 한국문화연구소(K-Culture R&E Center)의 안주희 센터장이 진행한 강연과 워싱턴한국문화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안 센터장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사의 유래, 의미, 차례상의 전통 음식, 그리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문화의 깊이를 알렸다.

문화원 측은 행사 참가자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통해 한국 전통 의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했고, 전통 공예 체험인 칠보 작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섬세함을 느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칼리지가 한국문화연구소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 음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 및 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K-컬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성공한 여성 기업가’에서 ‘세계적 여성 스포츠 거물’로

▶ 1편 ‘미셀 강’에서 이어집니다

이후 강 회장은 ‘언스트앤영(Ernst & Young)’ 파트너를 거쳐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 회사인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에서 고위 임원 직책을 역임했다.

강 회장이 이끈 ‘정보 기술 건강 솔루션 사업부’는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매년 수익을 증가시키며 4배 성장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당시 암 투병 중이었던 강 회장은 투철한 사업가 기질로 업무를 완수했고, ‘암과의 싸움’도 승리했다.

탄탄대로를 걸던 강 회장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는다. 2008년, 강 회장은 우연한 기회에 자택 내 빈 방에 스타트업 회사 ‘코그노산트’(Cognosante)를 창업하게 된다.

‘코그노산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경기침체 시기에도 ‘정보 기술 분야의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이 기업은 연방정부의 보건, 군사, 정보 기관과 연계해 각종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잡았다.

‘코그노산트’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약 2,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강 회장이 구축한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 덕분에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세 번이나 받았다.

강 회장은 그동안 기술과 여성 스포츠



지난 16일 미셀 강 회장(왼쪽)이 본인이 소유한 ‘워싱턴 스피릿’ 플레이오프 준결승전 관람차 아우트필드 경기장을 방문한 조현동 대사(오른쪽)와 함께했다.

츠 분야에서 쌓은 혁신적 성과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의 기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의료 기업을 지원하고 멘토링하기 위해 ‘코그노산트 벤처스’를 설립했으며, 여성 스포츠 전용 미디어 플랫폼인 ‘저스트 우먼스 스포츠(Just Women’s Sports)’를 포함한 여성 주도의 스포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강 회장은 한미동맹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렸던 미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 해병대 박물관과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모인 ‘장진호 참전용사 후손협회(Chosin Few)’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재향군인들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부상당한 재향군인과 그 간병인을 위한 일자리를 찾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강 회장은 예술을 사랑하는 자선가로서 워싱턴 국립 오페라와 노턴 미술관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케네디 센터 국제 예술 위원회와 팜비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그녀는 선구적인 기업가 정신과 자선 활동을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2022년, 강 회장은 주니어 어치브먼트 오브 그레이트 워싱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워싱턴 DC 지역 올해의 EY 기업가상과 미국 서비스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2년 ‘100대 여성 리더’, 2016년 ‘100대 CEO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세용 기자

워싱턴DC 정부 김장 담그기 행사

22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도서관

워싱턴DC 시장실 산하 아시아태평양 주민국이 오는 22일(금) 오후 6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도서관에서 한국의 귀중한 음식문화 유산인 김장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이 행사는 김장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기념하고 DC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제정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 패트리스 커닝햄(Patrice Cunningham)대주 김치 대표



가 행사를 진행하며 김장 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하고 및 시연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 기회와 함께 자신이 만든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더불어 행사 현장에서는 한국반찬들을 시식할 수 있다.

행사 참석은 무료이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용이하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NEW DC 리커 + 건물 디씨 리커와 코너 건물 포함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백5십만불</p>	<p>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p>	<p>NEW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매일,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이 운영중 25만불</p>	<p>NEW 페어옥스몰 버블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8000불, 7만불</p>	<p>NEW 버지니아 상가건물</p>
<p>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임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입 \$11,000</p>	<p>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기 연순수익 \$218,000</p>
	<p>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복권 매출 3층 VA 알링턴, 25만불</p>	<p>단독건물 애난데일 최고 상권, K-Market 건너편 임대, 드라이브 프루잇, 2500 SF, 식당, 커피샵,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p>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거부' 될 수 있어

한국 소재 주중대사관 공지 "목적·일정 상세 설명해야"

이달 8일(한국시간)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된 가운데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한국 소재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사관 측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대사관 측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의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육군학사장교 동문 델러스 총집합

북미 3개국 15개 지역 70여명 정기총회서 유영인 회장 선출

1981년 첫 장교를 배출해 현재까지 69개 기수 총 5만 2000여 명의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배출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북미주 동문회(회장 박헌수)가 델러스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중남부 달라스·휴스턴지구회 주관으로 캐롤튼에 소재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주 3개국 15개 지역 지구회에서 7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둘째 날인 9일 델러스 지구회 박대욱 씨(22백40기)의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 겸 기념행사는 조현근 초대 회장(3백3기)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조현근 초대 회장은 2018년 창립총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했다.

박헌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총회에 먼 곳에서도 참가해주신 모든 동문과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델러스, 휴스턴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델러스에서 열린 제4차 북미주 총회에 참석한 육군학사장교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학사장교 북미주동문회 제공]

했다. 이날 북미주 총동문측은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박헌수 회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또 임관 40주년(노세희, 홍동환, 박명수, 이동선, 민동규, 송영진, 박용선)을 맞는 4백 동문과 임관 41주년을 맞는 3백 동문(조현근, 이정환, 김려중, 정봉수, 임종남, 유상용, 임채중)도 기념패를 받았다.

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현 달라스 지구회 유영인 회장(5백7기)을 차기 북미주 지구회 회장으로 선출

했다. 유영인 차기 회장은 "여러 봉사활동과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육군학사장교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차기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는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애틀랜타를 2026년에 열릴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동문회 제5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선정했다. ▶문의:(213)500-2635

샘 박 의원 민주 원내총무 연임

조지아주의회... 입법활동 감독

5선에 성공한 샘 박(사진) 조지아주 하원의원(민주)이 지난 14일 2025~2026년 회기 조지아 민주당 원내총무(Minority Whip)로 다시 선출돼 의정 활동을 이끈다.

박 의원은 2023~2024년 회기 아시아 계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로 처음 뽑혔다.

그는 "민주당의 새 리더들과 조지아의 일자리, 양질의 의료, 저렴한 주택,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확대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내총무로서 의회 양원을 통과하는 입법 활동을 감독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과 결의안의 세부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샘 박 의원의 지역구는 로렌스빌 등을 포함하는 107지구이다. 윤자아 기자

"새 팀원 왔네요, 노트북 신청할게요"

일상 업무 돕는 AI비서 MS, AI비서 결합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비서) 기능을 공개했다. 빅테크 중심으로 자사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결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AI 에이전트가 챗봇을 넘어 새로운 AI 전장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MS는 19일 시애틀에서 연례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MS 서비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결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처음 코파일럿 스투

디오(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에 결합한 AI 에이전트를 공개한 데 이어 다양한 다른 제품군에도 그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붙인다는 의미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일의 순서와 흐름을 짜고, 활용 가능한 도구들을 써서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시스템이다. 일일이 할 일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원하는 걸 말하면 스스로 방법을 찾는 '자율성'이 AI 에이전트의 핵심이다.

MS 365 코파일럿에서 제공하는 '직원 셀프서비스 에이전트'는 직장에서 필요한 행정 업무를 돕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새 직원이 추가됐을

때 IT 부서에 노트북을 요청하는 작업을 에이전트가 대신해줄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하거나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에이전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역 에이전트'는 MS의 협업 툴인 '팀즈'에서 최대 9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한다. 언어를 선택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해당 언어로 듣거나 볼 수 있다. MS 측은 "내년 초에 해당 기능을 프리뷰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생성 AI 시장에서 '킬러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AI 에이전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권유진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트럼프 시대 은퇴 준비, 어떻게 하나

고소득 은퇴자 유리 이자소득 의존하면 낭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면서 은퇴를 위한 재정 플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가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공약한 바 있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은퇴 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 시니어 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은퇴자의 개인 연소득이 2만5천 달러(부부 합산 3만2천 달러)를 초과하면 은퇴 소득의 50%가 과세 소득에 포함되고, 개인 연소득이 3만4천 달러(부부 합산 4만4천 달러)를 초과하면 은퇴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은퇴를 앞둔 세대나 젊은 세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펀드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메디케어국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득 과세가 폐지될 경우 메디케어 펀드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2036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겨지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펀드는 2035년에서 2033년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의 다른 공약인 팁 소득 비과세 조치 역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는 소셜 시큐리



티 연금 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관료주의적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명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는 삭제 또는 대폭 감축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전 조기 은퇴 후 오바마케어에 의존해온 세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주장하며 연방준비제도에 압력을 행사할 의사를 표명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퇴자들의 주요 저축 수단인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세이빙 어카운트의 금리가 연쇄적으로 하락, 이에 의존하는 은퇴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금리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어 부동산 신탁 및 투자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낮은 이자율로 인해 금융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이득세 인하 공약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식 매매를 꺼리던 은퇴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변화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 중인 세대는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략,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트럼프 시대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욱재 기자



풀러턴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한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 전, 현직 회장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 제공]

“한국 위해 희생 미군에 감사”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 참전용사기념비 헌화·참배

미주한인회 서남부연합회 회장, 임원들은 지난 16일 풀러턴 힐크레스트 공원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조규자 서남부연합회장은 “베테런스 데이를 기념해 참배를 하게 됐다.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세계 16개국에 참전한 가운데 가장 많이 파병한 미군 3만6591명의 희생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었고 세계 12위 경제 규모의 잘사는 나라가 됐다. 감사다”고 말했다.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의 노명수 상임고문은 “서남부연합회 임원들의 방문에 감사드린다. 미국 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워진 이 기념비는 한미 동맹에 큰 역할을 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헌화와 참배엔 서남부연합회 조규자 회장, 이동섭 이사장, 풀송 상임고문, 이성국(라스베이거스), 강석호(새크라멘토), 박현일(콜로라도), 최영순(마우이), 이강복·이진희(이스트베이) 전 회장, 김민아(인랜드) 회장, 샌디에이고 한인회 앤디 박 회장, 로즈 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FAFSA 공개 시한 법으로 못 박는다

시한 매년 10월 1일로 지정 법안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졌던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 공개 지연의 여파로, FAFSA 양식 공개 시한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연방하원은 매년 10월 1일을 FAFSA 양식 공개 시한으로 지정하는 ‘FAFSA 공개 시한 법안(H.R.893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1월 1일까지 FAFSA 양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통상 매년 10월 1일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FAFSA 양식 개편으로 인해 각종 오류가 계속되며 12월 말로 공개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신입생들은 대학선택일(디시전 데이) 전까지 재정보조 정보도 모른 채 디파짓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버지니아 폭스 연방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5선거구)은 “FAFSA 양식 공개 지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위태로워졌다”며 “의무 마감일을 지정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2026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 예정됐던 ‘12월 1일 공식 공개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다음 학년도 FAFSA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FAFSA 양식은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 테스트가 실시됐다.

윤지혜 기자

IRS 미납세 이자율 내려 내년부터 8%→7% 하향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을 적용된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

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한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진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M&T, 대장금, 미라조, 올
웨일라노래방
미라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08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러 핵위협 다음날 '키이우 대공습' 정보...대사관 줄폐쇄

미 대사관 폐쇄에 직원 대피령

러시아가 핵교리를 개정,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다음 날인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공습 정보가 돌면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에 키이우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은 임시 폐쇄 조치와 함께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 [로이터 연합뉴스]

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

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키이우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공습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도 자국 대사관에 같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는 대사관은 폐쇄하지 않았지만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키이우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한국 시민들에게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날 "현재 불가피한 사유

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공습경보 발령 시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다만 공관 폐쇄 등의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 곳곳엔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새 드론 56기를 격추했지만 58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추적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키이우에 잠시 공습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대규모 공습 정보가 러시아가 퍼뜨린 가짜 정보라고 일축했다. 정보국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특히 대규모' 미사일과 폭탄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가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이 메시지는 가짜이며 러시아 정보·심리 작전의 전형적인 문법적 오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 수요 감소 유럽서 4천명 감원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유럽 인력 4천명을 감축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는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천900개, 영국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하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 전체 인력의 14% 정도다.

포드는 독일 쾰른 공장에서 익스플로러와 카프리카 모델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지난해 2월에도 유럽 직원 3천8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천명이 근무하는 독일 자를란트주



자를란트주 공장은 내년 폐쇄하기로 확정된 상태라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레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에서 포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7.9% 감소했다.

존 롤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와 유의미한 인센티브, 탄소 배출량 목표와 관련한 유연성 등 전기 모빌리티를 위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가자전쟁 휴전결의안 불발...미국 거부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를 열어 10개 선출직 이사국(E10)이 제안한 가자 전쟁 휴전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를 재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 등 14개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거부권 행사하는 미국 대표 [뉴욕 AFP=연합뉴스]

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권국은 없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장관 지명자도 논란

WWE 운영시 성학대 목인 의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린다 맥마흔(사진) 교육부장관 내정자도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학대 문제를 목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남편 빈스와 함께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공동창립한 린다 내정자가 옛 직원들로부터 지난달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 수십 년 전 10대의 나이로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다.

이들은 WWE의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맥마흔 부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은 WWE의 전신인 월드와이드레슬링페더레이션(WWWF) 시절인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다.



이와 별개로 남편 빈스 맥마흔은 성학대와 인신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빈스는 올해 초 WWE에서 일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여성은 빈스가 WWE 관계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빈스는 지난 2022년에도 성추문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당시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린다는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과 달리 남편 빈스가 연루된 성추문 사건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WP는 짚었다. 1980년 프로레슬링에 오락요소를 접목해 WWE를 설립한 맥마흔 부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다. 린다의 변호사는 린다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옛 링 보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는 억지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폭탄 관세' 예고...기업들, 중국제품 사재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사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런 기업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소재 스킨케어 제품 판매회사 베어 보타닉스의 창업자 제이슨 주노드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각질 제거 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주노드는 이날 1년 치 재고에 해당하는 5만 달러어



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 주문한 제품 3만 여개가 모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미리 중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섰다 당시에도 일부 미국 기업들은 새로 도입된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급히 중국산 제품을 사재기했다.

그 탓에 미국의 2018년 대중 무역 적자 폭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커졌다가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이후인 이듬해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미 한차례 트럼프 시대를 경험한 미국 업체들은 그의 복귀가 임박하자 발 빠르게 과거의 전략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의 당선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지난 10월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 중국산 물건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업체가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일부 업체들은 남미나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국을 대체할 제조 국가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베어 보타닉스 창업자 주노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중국 공급업체를 대체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미국 내에서 물건을 사올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 별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히스토리릭 한인타운의 중심도로 Little River Turnpike을 한국을 상징하는 도로이름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에 동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7004-L Little River Turnpike 2층, Annandale, VA 22003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가 주관한 미 독립기념일 한인퍼레이드

내용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는 애난데일 Little River Turnpike (1.4마일 구간: Heritage~Evergreen)에 한국을 상징하는 도로명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한인사회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도로 이름을 정하는 투표도 진행되오니, 함께해 주셔서 한인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가 주관한 코리아페스티벌

◆ 추진위원장: 스티브 리 ◆ 추진위원회: Saddam Salim VA 상원의원, Irene Shin VA 하원의원, Mark Keam 전 VA 하원의원, 황원균 전 한인커뮤니티센터 부이사장, 고은정 수석부회장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회장 스티브 리

문의: 고은정 수석부회장 703-507-8221 info@KoreanAssociation.org | 웹사이트: KTownVA.com 또는 KTown.KoreanAssociation.org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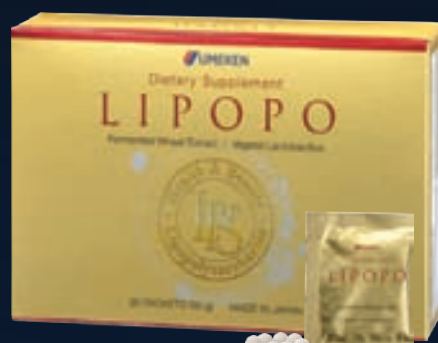
제품 2개 구입시, 2번째 제품

40% 할인

할인혜택은 2개 중 동일 또는 더 낮은 가격에 적용됨

행사2

프리미엄 세트 20% 할인



일주일이면 우리의 몸을 강하게 바꿔주는

우메켄 효소환

~~\$439~~ ▶ **\$351**

(No Gift. 4개 한정)

9가지 극상품 버섯의 놀라운 항암 효과

우메켄 베타글루칸

~~\$539~~ ▶ **\$431**

(No Gift. 4개 한정)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면역력을 올리는

우메켄 리포포

~~\$439~~ ▶ **\$351**

(No Gift. 4개 한정)

피부면역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기능성 화장품

우메켄 L&B (풀세트)

~~\$439~~ ▶ **\$351**

(No Gift. 4개 한정)

우메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1년에 딱 한번의 기회

12월 1일까지

잡으세요!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몰러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상무장관 지명 '고관세 추종자' 러트닉, USTR도 손에 쥐나



트럼프 2기 파워엘리트⑧

“소득세 없고 관세 있을 때 미국 번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
9·11 테러 당시 극적으로 목숨 구해
트럼프 “USTR 직접적 책임 맡을 것”

미국 투자은행 ‘캐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63·사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19일(현지시간) 공식 지명됐다.

산업·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는 한 해 예산 110억 달러(약 15조3100억원), 직원 5만1000명의 거대 부처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반도체·사이버보안·특허 등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부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은 추가로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아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을 상무장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러트닉은 재무장관 후보였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대놓고 러트닉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러트닉은 트럼프가 공약한 대중고용 관세(60%)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앞서 러트닉은 지난달 뉴욕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고 언급했다고 CNN이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우호적이다. “비트코인도 금과 석유처럼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가상 자산에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생각을 바꾼 사람도 러트닉이라는 평가다.

미국인에게 러트닉은 2001년 9·11 테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인물로 각인돼 있다. 그의 회사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꼭대기 층을 썼

는데 당시 테러범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발당에 충돌해 친동생 개리를 포함한 직원 658명이 숨졌다. 사고가 터졌을 때 러트닉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느라 사무실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후 그는 회사 이름을 딴 구호기금을 설립해 각종 재난 피해자를 돕는 자선활동을 해왔다.

트럼프와 러트닉은 수십 년 전 뉴욕에서 열린 한 자선행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특히 9·11 테러를 계기로 ‘뉴욕의 비즈니스맨’이란 공통점으로 트럼프와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러트닉은 과거 인터뷰에서 “테러 이후 트럼프는 매우 친절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유대계 출신답게 러트닉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이 발발하자 “트럼프에 대한 나의 헌신이 두 배가 됐다”면서 “테러리스트를 분쇄해야 하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다.

최근 2년동안 트럼프

당선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한 돈은 7500만 달러(약 1050억원) 이상이다.

러트닉은 지난 8월 이후 트럼프 인수팀 공동위원장과 회사 CEO를 겸임하고 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에는 회사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엔 인수위 업무를 본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서비스센터(CMS) 수장에 TV쇼 진행자인 메렛 오즈(64) 박사를 지명했다. CMS는 1억 5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가입한 공공의료보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외과 의사 출신인 오즈 박사는 미국 공공의료 체계에 메스를 댈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정부기관의 낭비와 사기를 줄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의료비 지출의 3분의 1, 전체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서유진·장운서 기자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지켜보는 트럼프
19일(현지시간)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인 스타십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프로레슬링계 거물 맥마흔, 미국 교육 책임질 수장으로

WWE 설립... 트럼프와 인연 맺어
트럼프 1기선 중소기업청장 지내

19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린다 맥마흔(76·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20년 지기인 프로레슬링계 거물이다. 린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남편 빈스 맥마흔(79)과 함께 트럼프의 첫 대권과 두 차례 재선 도전

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때문에 맥마흔 부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워커플’로 꼽힌다. 지난 6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승리 선언을 할 때 트럼프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올라 자타공인 최측근임을 보여줬다.

맥마흔 부부는 1980년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설립했다. 트럼프도 부부의 친분을 계기로 프로레슬링 팬이 됐다고 알려졌다.

2007년 트럼프와 빈스가

각자 레슬러를 지정해 대리전을 펼친 ‘역만장자 대결’은 지금까지 회자된다. 당시 트럼프가 내세운 레슬러가 승리해 빈스는 링 위에서 트럼프로부터 식발을 당하는 벌칙을 받았다.

린다는 WWE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정계 입문을 꿈꿔 두 차례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러던 2016년 맥마흔 부부는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를 후원하며 트럼프와 더욱 가까워졌다. 첫 대선 승

리 후 중소기업청장에 지명된 린다가 2019년 행정부를 떠날 때 트럼프는 “그녀는 슈퍼스타였다”고 말했다.

당초 린다의 경력을 고려해 상무장관 지명이 전망됐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했던 이 자리를 하워드 러트닉 인수팀 공동위원장이 차지하면서 교육부장관 자리를 쫓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린다의 교육 관련 경력은 2009년 1년간 코네티컷 교육위원회에서 일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임선영 기자

‘핵 교리’ 바꾼 푸틴, 북한 ‘핵우산’ 자처할 가능성

미국의 ‘한국 핵우산 역할’ 위협
한반도 대북억제력 뒤흔들 수도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러 반응 본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핵 교리(‘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핵 비보유 국가의 공격은 (핵보유국과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핵보유국과 동

맹 관계에 있거나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핵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 등 핵보유국과 더불어 이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도 상황에 따라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국가’란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이나온다.

동시에 러시아의 핵 교리는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한 군사연합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러시아는 또 다른 조항을 통해 동맹국으로 벨라루스를 특정했으나, 이 역시 러시아의 편의에 따라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북·러는 올해 6월 ‘포괄적 전략 적인 동반자 조약’을 맺

으며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다. 북한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 지켜줄 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러가 ‘불량 동맹’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위협하고, 북한에는 든든한 핵우산을 씌워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셈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 뒷배’를 자처할 경우 한국의 대북 억지 정책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법적 핵개발국인 북한과 합법적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까지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9일 에이태컴스(ATACMS) 미사일 여섯 발을 러시아 본토 브란스크주 카라체프를 향해 쏘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통합 유럽·국제연구소장은 타스통신에 “(에이태컴스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용은) 러시아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인 만큼 러시아로선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보복을 할지 예측이 어려워니 제한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반응을 살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백일현·이유정·박현주 기자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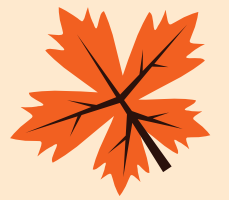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Happy Thanksgiving



NOV. 21st - NOV. 28th, 2024

Frozen Chilean King Crab Leg
킹크랩다리

400-600'S/LB

~~\$29.99~~

\$19.99



속이 짝~꿨다!



0.6 OZ X 10 EA /BOX

~~\$12.99~~

\$9.99

SUNG GYUNG
Gopchang Sliced Laver
곱창돌김 (조각김)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방역 성공했다고? 경제·과학 무시한 결정 아쉬워

2023년 5월,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자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다.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정책에 칭찬만 하기엔 짝퉁하다.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감염자·사망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민간 시설 운영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엔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 박탈과 경제 손실이 뒤따른다.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한다. 감염병 관리 정책의 목표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실과 방역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일·캐나다·일본이 성공적인 이유

우리는 코로나 사망을 잘 막았는가? <그림 1>에서 보듯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는 중국은 불과 100명 이하인 반면, 대한민국은 약 700명, 미국은 34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기저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가령,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한으로 보고하고자 코로나 감염 진단 이후 폐렴·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만을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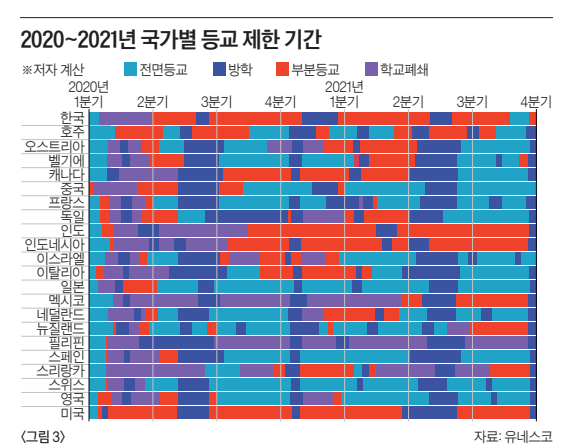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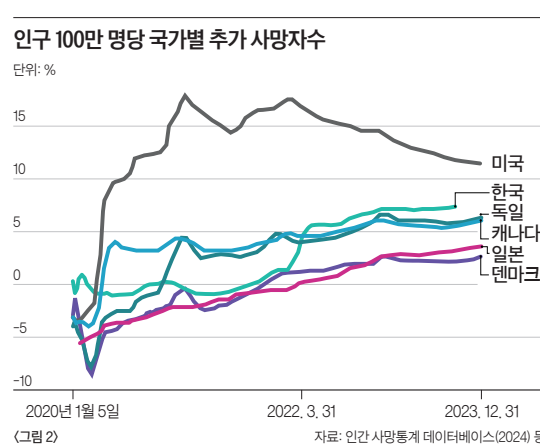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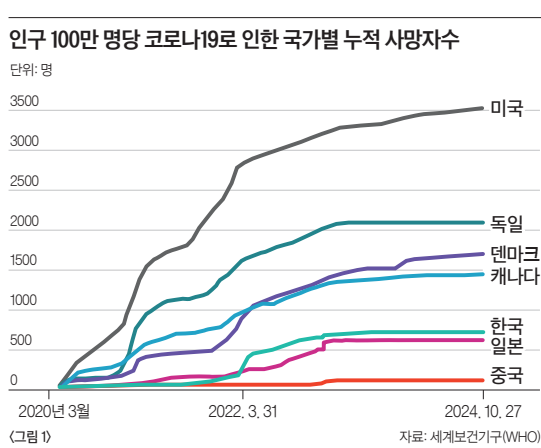
보다 정확한 통계는 ‘초과 사망’이다. 초과 사망은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각국의 인구구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2020~2023년의 사망자 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사망자 수와의 차이로 계산한다.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망 자체는 통계적 오류가 적으므로 초과 사망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림 2>는 2023년 5월 기준 국가별 누적 초과사망률이다. 초과사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독일·캐나다·일본·덴마크 등이 더 성공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초기 코로나 대응 전략은 빠른 검사, 추적, 치료로 구성된 소위 3T 정책이었다. 이 전략은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극단적인 봉쇄 조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자 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개인의 이동 경로가 공개돼 감염자들이 신상 털이 및 사회의 비난에 시달렸다. 공공 보건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은 그 조치가 법적이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래에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도 우리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적 증거 나왔는데 등교제한 지속

코로나 방역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었다. 등교 제한은 코로나 감염을 줄일 것이라 추측했지만, 놀랍게도 감염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 가령, 독일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가을, 주별로 개학일이 최대 한 달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점을 이용해 등교가 코로나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 등



교가 코로나 감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대신 가는 장소에서 감염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친구 집, 학원, 놀이터에서 놀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는다. 학교나 다른 곳이나 감염 확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방역의 실효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필자는 2020년 겨울부터 이를 여러 차례 지속해서 언론에 알렸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등교제한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등교제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다음에도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실제로 <그림 3>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등교제한 조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었다.

필자는 등교 제한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한국 고등학교 일주 190일에 크게 못 미친 104일이다. 실제 등교 일수는 학교에 따라서 50일에서 150일까지 학교별 차이가 컸다. 이렇게 등교 일수가 코로나 유행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등교 제한 조치가 고등학생의 학력 결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학습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등교제한의 부정적 영향이 공부를 못 하던 학생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주의적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손실은 코로나 발생 자체 때문인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 때문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업, 소득 감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카드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2020년의 카드 매출은 영유아 교육시설 50%, 숙박시설 38%, 요식업 및 미용업은 20%가 줄었다. 자영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인 요식업의 중위값 매출액은 2019년 7600만원, 이윤이 2400만원 정도다. 고정비용의 비율이 높아 매출이 25% 줄어들면, 이윤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요식업자의 소득이 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단발성 현금 지원과 과도한 부채 우려가 큰 대출에 주로 의존했다. 반면 다른 선진국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했다. 가

령, 독일은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일본은 1년 중 한 달이라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다면 일정한도 내에서 12개월치 매출 감소분을 지원했다. 반면, 우리는 일회성 지원을 네 차례 시행했으며, 지원 방식과 기준, 액수(350만~650만원)는 매번 달라졌다. 외국들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과도하게 길어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가 시민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시민의 삶의 규칙을 정부가 정하고 따를 것을 강제했다.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2년 이상 지속하며 시민 자율성에 큰 흠집을 냈다.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서로 감시하며, 코로나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했다.

방역 수칙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만 최소한의 것으로 강제하고, 나머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을 지라도 시민 자율성의 공간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모든 행동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반자리를 윤리가 메워주는 것처럼.

악성 규제의 대표적 예로 2022년 9월까지 이어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다. 실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강제한 이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실내에서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황당한 우려 때문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도 유감스럽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가장 늦게 폐지한 나라다. 이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접종완료자의 치명률을 계절독감 이하 수준으로 판단한 2022년 초에 이뤄졌어야 했다. 계절독감이 유행하던 시절에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3년 1월,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에서는 2024년 5월이 돼서야 해제됐다.

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맡겼다. 자발적인 착용과 법적인 강제 착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극한 2022년 상반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폐기했다.

마스크 착용에도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이 대표적인 문제다. 아이들은 말소리를 듣는 것 외에 입 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배운다. 얼굴의 표정, 눈빛, 인상 등을 통해 비언어 기능을 키운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이를 크게 저해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방역 패스도 대표적인 과도한 조치였다. 백신 미접종자가 사실상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혹한 조치였다. 당시 우리 성인 국민의 80~90%가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10~20%에는 단순 백신 거부자도 있지만 백신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헌법에 명시된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백신에 의한 죽음이 있다. 국가 책임의 차원에서 이는 코로나에 의한 죽음과 등가가 아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은 국가의 적극적인 동원의 결과이고, 코로나 감염에 의한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국민은 인식한다. 즉 죽음에 대한 국가 책임 수준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방역패스 도입에 세심하고 배려 있는 정책설계가 아쉬웠다.

경제학 전공자가 이끈 싱가포르 방역

싱가포르는 2021년 6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규모 확진자 동선 파악, 검사, 격리, 집단검사 등의 기존 방역 방식을 포기하고 일상생활 회복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감염자 수가 크게 늘었으나,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며, 이러한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다. 등교도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비결은 의사결정을 보건과 경제를 다루는 공무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 합동 대책기구는 재무장관, 보건장관, 통상산업장관이 지도부가 됐는데, 세 명 모두 경제학 전공자였다. 그렇기에 싱가포르의 보건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팬데믹 대응은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 자율성보다는 국가 주도, 과학에 근거하기보다는 책임 회피적인 결정이 많았다. 마냥 자화자찬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많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MERCY
CHIROPRACTIC

머시척추신경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에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전문의 박중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BUS UNITED AIR CHINA KLM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2025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고품격 고국일주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옵션)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박)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2~12/28 크리스마스 특선 북프랑스+벨기에
 6박7일 \$2490+항공
 12/25~12/31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14~4/20 불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울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울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토크
 5박6일 \$1690+항공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울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토크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항공포함)
 8/29~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울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울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박11일 \$2990+항공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아시아,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만년버뮤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리카데스, 파동 아시아 피피섬, 왓할롱사원 코끼리 트레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리마크, 호치민영모 생활관, 비단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미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박물관, 갠가사당, 풍중의집 광조화관, 비내림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이오헤 아시아, 서문정거리, 태로산탐구, 화려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랜드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트사실, 실로소버티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 시티
 CHRISTMAS SPECTACULAR
 12/23~24 1박2일 \$499
 스테이크 특식 저녁, 브루클린 탐보 아경 포토타임

당일 X-마스 특선
스트라스버그 기차 & 롱우드 가든
 12/13, 20 \$179
라디오 시티
 12/11, 17 \$199

당일 신년 해맞이
 1월 1일
 4:00 am 출발 \$89

성극 대니엘 + 에미슈마켓 당일
 12/12 \$199
 12월 20일 마감 (2025년 3월부터 '노아' 공연)
 단체 8명부터 환영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출발)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출발)

뉴욕
 1박 2일 \$399

탐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출발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매주 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매주 월출발

캐나다 토크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총리부터 모든 장관 개각 대상... “전 부처 인사파일 준비중”

용산, 후반기 전면 인적쇄신 수순
주호영·권영세 등 총리 후보 거론

대통령실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일정에 맞춰 보고할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사자료다.

취임한 지 2년을 넘은 교육·복지·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부처의 수장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 인제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추천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찾고 있다. 장관에 대한 평가 역시 취임 시기와 관계없이 철저히 능력을 따져 존재감 없는 인사들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아공군기지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쇄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리 후보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의원과

장과 5선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리는 야당의 인준 변수가 있어 정치인 출신이나 이미 검증받은 인사로 먼저 살펴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상

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친윤계 일각에선 “설령 야당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야당도 아무나 낙마시킬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을 찾으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건 그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 진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목한 이른바 ‘한남동8인방’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에 대한 인적 쇄신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쇄신 시점을 국회의 예산 처리가 끝난 이후로 못박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에서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연말은 돼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옛날 같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관 인사 가 땀지 않나”며 “지금은

검증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해 이른 시일 내에 하기가 어렵다. 적절한 시기에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순 고르기 중이지만, 친한계는 여전히 대통령실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중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이 어떻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가 제일 우선”이라며 “대통령실도 처음에 출범할 때처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 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이번 인적 쇄신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따르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태인 기자

방통위원장 연봉도 깎았다... 야당 ‘힘자랑식’ 예산 삭감

‘김여사 예산’ 용산과학관 전액 없애
경찰 특활비 0원... 원자로 R&D 감액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의 힘자랑식 예산 삭감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대표적이다. 20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지원과-기획조정관 기본 경비를 35%씩 삭감했고, 방통위 내 검찰·경찰 등 파견 수사 인력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는 전

액 삭감했다. 대신 불법 스펀 대용체계 구축(23억원) 같은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방통위 예산 총액은 늘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본 경비엔 ▶기계계약직 인건비 ▶출장 여비 ▶공공요금 지급 ▶복사·인쇄비 ▶소송비 등 기관 운영에 드는 필수경비가 포함돼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극우성향 방통위원장 임명, 불법적인 2인 체제”를 주요 삭감 이유로 들었고, 노중면·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도 “방송장악·언론단압 등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소송비로 위협적인 전용이 발생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당장 방통위 문 닫으라는 것”(최수진 의원), “과점죄, 보복이라고 쳐도 너무 지나친다”(박충권 의원)는 반발이 나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기본 경비를 공무원 직원 임금이 포함돼 있어 삭감하면 사무보조원 등 9명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읍소한 뒤에야 공무원 인건비 등 일부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소송비 부족으로 ▶애플·구글의 인 앱 결제 ▶딥 페이크 대응 ▶알리 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소송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의 제재 효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위법적 2인 체제”를 근거로 방통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연봉 예산도 2억4000만원 감액했다. 류희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은 5000만원 삭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선 연구개발(R&D) 항목도 대거 감액됐다. 민주당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며 정부안 70억원이던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7억원으로 90% 삭감했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의심하는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설립·운영 예산 42억1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에서 “무조건 삭감”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찰청 예산 중에는 특수활동비 31억67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집회 관리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됐다. 반대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 없었는데도 증액됐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다. 야당은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146억원 증액했다.

김기정·이창훈 기자

IMF, 한국 성장률 전망 또 내렸다... 올해 2.2% 내년은 2.0%

“불확실성 크고 하방 위험 더 높아”
올해 0.3%p, 내년은 0.2%p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하방 위험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어려운 대외 여건을 꼽으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20일 IMF 협의단은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의 2.2%에서 2.0%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5%에서 2.2%로 수정했다.

라울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의 주된 하방 요인을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외 여건에서

찾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중국의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아난드 단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물음에 “당연히 미국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새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나서 확실하게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해 IMF는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선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제안했다.

IMF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의 주요 기관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경제 상황은 3분기 실질 GDP가 0.1% 증가(직전 분기 대비·속보치)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수부진은 내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 예상에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춰 2.2%로, 내년은 0.1%포인트 내려 2.0%로 제시했다. 오는 28일 수정한 경제전망을 내놓을 한국은

행도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IMF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불어남 기업의 부채와 관련하여 아난드 단장은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으로 자본이 더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채를 관리해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에 힘을 실어주며 회복세에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5법 리스크' 이재명 "룰라 기소한 브라질 검찰처럼 날 기소"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 걷는다” 선거법 규제 지나치다 개정 주장도 야당, 검사탄핵안 29일 표결 추진 당내선 “탄핵 너무 낱발” 지적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이라며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게 29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

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법사위에 탄핵안을 계류해 놓은 뒤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고삐를 다시 죄

는 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9일 경기도 법원 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는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게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맞짱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사 탄핵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때 손준성·안동환·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7월에도 강백산·김영철·박상용·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김영철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사가 무도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탄핵이 너무 낱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0일 “헌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보면 서면 추사에

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유죄 판결 이전에 전달된 추사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례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경기지사 시절 법안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데 대해서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안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연대 논술 효력정지 안 풀려... 교육부 “내달 26일까지 대안을”

서부지법, 연대 이의신청 기각 자연계열 합격자 발표 연기 불가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사태가 항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세대 자연계열 정원 중 261명의 합격자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타 대학까지 도미노 입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재판부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수험생

들의 혼란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20일 연세대 측에 “미등록 정원 합격 통보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육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다음 달 26일은 각 대학이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으로 빈 정원을 충원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과·공과·치과대 및 약대)에 응시한 1만4444명의 논술시험 결과 발표는 본안소송(재시험 이행) 판결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전체 모집인원(3489명) 중 15%(261명) 정도다.

연세대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월	6일 수능성적 통지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16-18일 합격자 등록
	26일 미등록 정원 합격자 마감
2025 1월	27일 미등록 정원 등록 마감
	3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3월 원서접수 마감
	7-14일 가군 전형기간
2월	15-22일 나군 전형기간
	23일-2월 4일 다군 전형기간
	7일 합격자 발표
	10-12일 합격자 등록
2월	19일 미등록 정원 합격 통보 마감
	20일 미등록 정원 등록 마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심 결정 이후 재시험, 정시 이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연세대의 희망 시나리오는 항고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기존 논술시험 결과대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본안소송에서 재시험 이행 여부를 다투겠다는 뜻이다. 연세대 내부에선 “본안소송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 변론기일 모두 잡히지 않았다. 가처분 항고심 패소 시 연세대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재시험 실시를 통지해야 수시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전망

이다.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로, 출제·검수·채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고심 패소 후 정시 이월을 결정한다면 수시 기회(6회 제한)를 날린 수험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이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정시 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빠른 재시험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시험에서 합격자란 있을 수 없다”며 “재시험을 결정하면 바로 본안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최민지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여당 “800만 투자자와 싸우잔 거냐”

민주당 ‘대선공약’ 내세워 강행 예고 정부의 유예 방침에 공개한도 올려 한동훈 “금투세처럼 폐지 끌어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

획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과세 시점은 두 차례 늦춰져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를 고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반응은 차갑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에도 유예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으로 열

기를 더해 가상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미 양보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후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은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

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의 편에서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성근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임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평소처럼 나오면 20분 늦어”... 지하철 태업에 고단한 출퇴

철도노조·교통공사 노조 준비투쟁 시민들, 지각 우려해 일찍 집 나서

지난 18일 태업을 시작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20일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철도·서울지하철 노조 동반 태업 첫 날인 이날 오전 출근길 시민들은 지각을 우려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거나 대체 교통편을 이용했다.

오전 7시 5분쯤 서울 사당역 2호선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김연희(31)씨는 “경기도 군포에서 교대까지 출근하는데 평소보다 10분쯤 더 걸리는 것 같다”며 “철도노조 태업 첫날 20분 넘게 지각해서 오늘은 아예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왔다”고 했다.

1호선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에도 오전 7시 30분이 넘어가자 시민들이 물리기 시작했다. 혼잡도가 높아지자 노란



수도권 전철을 함께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반 태업(준법투쟁)을 벌인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끼를 입은 질서유지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네 줄서기를 안내했다.

인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선 대체 교통편을 이용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19분쯤 버스를 기다리던 윤모(41)씨는 “경기도 행신에서 거주하면서 화성까지 출근한다”며 “원래 경의중앙선 타고 버스로

갈아타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 KTX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퇴근길에도 혼잡이 이어졌다. 오후 6시 10분쯤 서울역 4호선 플랫폼에 내려오자 경광봉을 들고 안내하는 역무원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라고 혼잣말 하며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운행을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차간격도 평소와 동일하게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 운영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6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한편 2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농총)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여 시민들이 차량 정체와 소음 등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과 농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송례문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세종대로부터 송례문 방면 전 차로를 메웠다. 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이다.

앞서 이들은 본집회 전인 오후 12시 30분쯤부터 서울 중구 일대(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 농협 본관 앞 등 5곳)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1~1.5km가량 송례문 앞까지 행진해 집결했다. 이들은 집회 종료 후 오후 4시 20분쯤부터 송례문~서울역까지 다시 약 1km 거리를 행진했다.

이보람·신혜연·김서원 기자, [연합뉴스]

마약 벗어나 일상 찾을 때까지... ‘한걸음센터’ 올해 1만8457건 지원했다

식약처, 마약류 투약자 재활사업 상담·치료서비스 등 119명 도와

30대 A씨는 얼마전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 “한번만 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손냈는데 마약 중독은 예상보다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다.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A씨는 끝내 경찰에 털리기까지 했고 마약류 투약 사범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투약 사범으로 분류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재활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이

붙었다. 검찰의 의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한걸음센터’가 파견한 전문요원이 A씨를 만나 상담과 사전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가 A씨의 중독 수준을 평가했고, A씨는 집 근처 한걸음센터에서 심리상담, 가족상담, 재활교육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덕분에 A씨는 6개월 넘게 마약을 멀리하고 있다. 그는 “치료와 상담을 받다보니 약에 대한 갈망이 많이 줄었다”며 “먼저 마약을 끊은 분들

과 자조 모임을 함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 17개 한걸음센터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8457건의 사회재활 서비스가 제공됐고, A씨같은 마약류 기소유예자 119명에 치료연계·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정부의 사범·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 결과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마약중독재활센터를 발전시

킨 곳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부산·대전 3곳에만 있었는데 올해 17곳으로 늘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센터)-한걸음센터로 이어지는 재활체계가 마련됐다. 전문가위원회 위원인 한림대의대 이상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투약사범은 단지 범죄자로만 볼게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걸음센

터가 국제교육 과정을 참고해 설계한 이론 수업을 충실히 듣고 필기시험과 현장실습에서 합격하면 식약처장이 인증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 예방교육·사회재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형사사범), 교육부(학교예방교육), 복지부(치료보호)와 연계해 유기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스터 기자

외교관이 쓴 영어동화, 한글본 나왔다

꼭 20년 전인 2004년, 도쿄에 갓 부임한 라종일(84) 주일 한국대사는 부임 인사차 고이즈미 준이치로(82) 일본 총리를 방문했다. 마침 라 대사가 1983년 펴낸 영어 동화책이 화제로 올랐다. 고이즈미 총리는 “정치학자가 어떻게 동화를 썼냐”고 물었고, 라 대사는 “동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고 답했다. 고이즈미 총리도 궁금해했던 그 동화책이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밤드리 노니다가』(헤르츠나인·사진). 동국대 석좌교수인 그는 지난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동화는 어린이의 순수함, 어른과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예찬론을 펼쳤다. 그의 또 다른 동화 『비빔밥 이야기』도 16개국에 번역 출간됐다.

왜 영어로 썼을까. 외교 현장을 누비기 전부터 그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쓰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었다고 한다. 문득 “우리 설화를 토대로 영어 동화를 써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설화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풍성히 해주고, 오늘날 K팝이며 영화에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라며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

피어가 쓴 ‘햄릿’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도 각각 덴마크와 독일 설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현업에 바빠 동화 쓴 걸 잊고 지냈는데, 연세대 국문과 김철 명예교수가 번역 출간을 권했다고 한다. 김 교수가 번역도 했다. 이번 책에 담긴 ‘용과 미녀’와 ‘오쟁이 진 남자’는 『삼국유사』 속 ‘한화가’와 ‘처용가’에서 영감을 얻었다. ‘용과 미녀’ 속 용은 인간이 복종하는 자연의 초월적 권위를 상징한다. 어느 날 미녀가 나타나 인간의 마음을 뺏자 용이 미녀를 납치하는 이야기다.

그는 “동화를 쓴 1980년대에 ‘사람들이 용을 전두환(당시) 대통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군사정권에서 출간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전수진 기자

민희진, 하이브 떠난다... “어도어 이사사임”

“하이브에 법적책임 물을 것”

민희진(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결국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난다.

민 전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한다”며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

리자)로 입사했다.

이어 2021년부터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뉴진스를 론칭해 성공시켰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하이브와 분쟁으로 다수의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하이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발송했다. 이지영 기자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 근육 통증치료
- 관절 / 근육이완치료
-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펠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본데없는 사람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절한 말은?

() 자란 사람.

가. 본데없이 나. 본데없이 다. 본데없이

보고 배운 것이 없거나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이처럼 셋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할지 헷갈린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나. 본데없이'다.

'본데없이'는 말이나 행실이 버릇없고 난폭하다는 뜻을 가진 '본데없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본데없다'는 "본데없는 놈 같으니라고" "본데없이 자란 사람처럼 굴어선 안 된다"처럼 쓰인다. "가. 본데없이"는 잘못된 표기다.

'본때'는 본보기가 될 만한 것 또는 땀이나 모양새를 의미한다. '본때'와 '본데'가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본때'의 폭이 더욱 넓다. "그 사람은 본때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처럼 '본때'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외적인 모양새를 가리킬 때 더욱 잘 어울린다. "우리도 남들처럼 본때 있게 살아 보자"가 이런 경우다.

정리하면 '본때'는 주로 예의범절·교양 등 내적인 소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본때'는 내적·외적 측면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더욱 잘 어울린다. 또 하나 차이는 '본때'는 '본데없다'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본때'는 '본때없다'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북극곰의 유래



김용원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



북극곰은 세계야생기금(WWF)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보호종이다. 과연 북극곰은 어디에서 왔는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인 갈색곰과 언제 갈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있다.

달마시안 개처럼 얼룩무늬가 있는 곰이 툰드라와 한대 산림 경계 산맥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이 곰은 동면 기간에도 배가 고프면 등지에서 나와 먹이사냥을 했다고 한다. 즉, 점차 북극곰의 장점과 갈색곰의 장점을 가진 하이브리드 곰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연구 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북극은 지구 위에서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따라서 순록과 같은 일부 동물은 북극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 북극의 최상위 포식자인 북극곰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학자들은 북극곰이 갈색곰과 구별되는 유전자 중 일부의 진화된 정보들을 모아 왔다. 그리고 새로운 유전체 분석 결과, 불과 7만 년 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북극곰은 갈색곰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지만,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핵심적 적응력을 갖고 있다. 우선 몸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겹의 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피부와 붙어 있는 큰 솜털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외부는 비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긴 보호털로 덮여 있다. 외부의 밝은 흰색 보호털은 위장에도 도움이 된다.

북극곰은 또한 심장을 손상하지 않고도 지방에 포함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축적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물개와 벨루가와 같은 고래 종류를 주요 먹이로 하면서 진화한 것이다.

북극곰과 갈색곰은 진화적 측면에서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대략 100만 년 이내에 분리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극곰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북극에 적응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한 팀은 북극곰 119마리, 갈색곰 135마리, 화석화된 북극곰 2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했다. 화석 중 하나는 13만년에서 1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르웨이 스팔바르 제도의

풀레핀텐(Poolepynten) 턱뼈였고, 다른 화석은 알래스카 보퍼트해(Beaufort Sea)에서 발견된 브루노(Bruno)라는 별명이 붙은 어린 북극곰 두 개골이었다. 브루노는 10만~7만 년 전에 살았던 암컷 곰이었고, 그 유전체는 과학자들이 갈색곰-북극곰의 분화 시기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유전체를 비교하여 북극 적응을 위한 7개의 핵심 유전자가 선택된 시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4개의 모든 북극곰 유전체에 동일한 DNA 변이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유전자는 이미 일부 고대 북극곰 조상에서 발견되었고, 북극곰은 진화 초기에 북극 생활에 적응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유전자가 빙하기 말기 북극곰의 적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다른 북극 동물도 털 색깔, 심장 건강,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전자에 유사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속제로 남아 있다.

연구자들은 북극곰의 특정 변이가 북극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북극 동물들도 같은 변이를 가졌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인간만큼 뛰어난 동물은 없을 것이다. 몽고반쯤을 가진 아시아인이 베링해협을 건너 남미까지 갔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기록으로, 동물은 화석으로 존재감을 피력한다.

네트워크

‘네오콘 리스트’라는 제목의 살생부

미국의 소셜미디어(SNS)에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 리스트’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해선 안 될 사람을 적은 일종의 살생부다. 살생부의 맨 위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9일 두 사람을 인신에서 배제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네오콘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단순화하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수 없고, 러시아·중국 등 진행 중인 전쟁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전쟁 발생 상황도 ‘협상’으로 막으라고 요구한다. 특히 대(對)중국 매과를 경계한다. 이들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 전쟁을 치른다면 이미 미국보다 강한 중국의 EMP 공격 등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죽게 될 것”이란 등의 음모론을 내세워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중국이 무서우니 미



강태하
워싱턴 특파원

리 협상으로 전쟁을 막으라는 요구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살생부에 올라 있다. 이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다.

지난 11일 강경파들은 이들의 지명 소식에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트럼프는 당일 발표를 하지 못했고, 다음날인 12일 폭스뉴스의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먼저 지명했다. 루비오의 지명은 여론의 관심이 헤그세스로 집중된 이후인 13일로 미뤄졌다.

주류 언론은 헤그세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강경파들 사이에선 이미 “트럼프에게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국과 대만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사람”이라며 국방장관 후보로 떠오른 상태였다. 헤그세스의 지명은 전문성 부족은 물론 성추행 의혹 등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강경파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인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강경파의 논리대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북한이 무서워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 시작된다면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될 리 없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강경파들을 향해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김정은과 어떤 협상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환 3, 2 레벨 싱글, 문빈슨 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힐,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지하 방, 풀바스, 우드 fireplace) 선풍, 파인오, 워터아웃
- **옥톤 싱글 렌트 \$3,600**
방 4, 환 2, 차고 2, 아베뉴고 넓은 정원,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메디슨 하이
-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3방, 방 1, 환 1, 세탁기 전부마부, 리모델링, 예쁜/Hmart 인근, 236/296, 1,000sqft, DC, Amazon 12마일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성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6) 독학의 아이콘

“반미하면 안 됩니까”... ‘독불장군 인생’의 대통령학 공부법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학을 공부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다. 인물마다, 시대마다 공부하는 분야가 달랐고 선생도 다양했다. 왕조 시대였다면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왕학 수업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예외적 케이스였고, 다른 대통령은 대부분 선생님이 있었다. 18년 집권의 박정희는 산업화를 이룩한 시대였던 만큼 경제 분야 스승들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의 첫 스승은 한국은행 조사부 대리 과장수(위스콘신대) 박사였다. 미국 경제학 박사학위가 특독히 위력을 발휘했던 시절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장기영을 경제 수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남덕우 교수를 재무장관·부총리·경제특보 등으로 중용하면서 조언을 구했고, 한국은행 출신 김정렴을 비서실장 자리에만 무려 9년 3개월 동안이나 앉혀 경제정책의 지휘봉을 맡겼다. 박정희 자신의 통찰력도 탁월했으나 주변의 멘토와 조언자들의 역할 또한 대단했다.

전두환의 스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정희 시대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전두환은 김재익이라는 결출한 스승을 만나 그가 그려준 그랜드 디자인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물가를 잡고 국제수지 흑자국을 만들었다. 김재익의 뒤를 이은 경제선생 사공일 또한 3차 호황을 이룩하게 한 재갈량 역할을 했다.

노태우 시대, 민주화의 도래와 함께 성장우선주의가 쇠퇴하면서 대통령의 스승 역할도 함께 변화한다. 김종인이 경제학 교수 출신이긴 해도 어느 경제학자와는 달리 오히려 정치외교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도맡았다. 소련 수교를 주도하는 데도 안보수석을 제치고 경제수석 김종인이 앞장섰다. 한동안 노태우는 정치든, 경제든 그가 주도하는 대로 따랐다.

흔히 경제 선생이라 할 수 있는 경제수석의 역할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김영삼 시대다. 후보 때부터 김영삼의 경제선생이던 서울대 교수 박재윤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박정희의 5개년 계획을 공식 폐기한 주역이다. 그리고 첫 경제수석에 자연스럽게 기용됐다. 하지만 김영삼은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경제수석 모르게 해치워버렸다. 이유는 별 게 아니었다. 취임 직후 경제수석 박재윤을 불러 공약 사항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지시했다. 그런데 박재윤이 “경제가 어



홀로서기 인생, 정치도 혼자 결정 대통령 열망 강했지만 준비는 부족 “어떻게 하면 대통령 잘할 수 있나” 재벌연구소한테도 아이디어 구해



려우니 좀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자, 아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시켜서 3개월 동안의 비밀작업을 통해 긴급조치로 해치워버린 것이다. 경제수석 모르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버리다니, 어이없는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김영삼은 경제문제 보고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음 대통령 김대중은 원래 자신이 박정희에게 맞먹는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외환위기 때부터 대통령직을 시작해야 했으므로 선생이 따로 없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선생이었다. 다만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회창의 참모였던 이현재를 위기관리 총사령관(금융위원장)에 앉히고 구조조정 일을 맡겼다. 김대중의 경륜과 내공이 그런 결단을 가능케 했다.

그다음 노무현에게 대통령학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였는가? 사실 노무현은 자신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사전준비가 부실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강했지만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거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추대를 받은 일도 없었다.

원래 노무현은 혼자였다. 고시 공부 가 독학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

생 또한 당선되든, 낙선되든 자신의 판단과 소신대로 해 왔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자신의 결단이었다. 어찌 보면 노무현의 인생은 풍운아, 독불장군 인생이었다.

노무현의 최대 성공은 대통령에 당선된 일이었다. 당선 후 노무현은 누구든 붙들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느냐”고 묻고 다녔다. 친형제처럼 도왔던 염동연·문재인·이호철·이광재·안희정·서갑룡 등을 중심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백방으로 인물을 찾고 아이디어를 구했다. 심지어 재벌 연구소의 조언도 마다치 않았다.

노무현은 상고도 최종 학력이지만 원래 독서를 좋아했고, 왕성한 지식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부림 사건을 계기로 ‘돈 버는 변호사’를 청산하고 변신을 도모한다. 역사와 사회 분야 책 읽기에 탐닉했고, 대학생들과 밤샘토론을 마다치 않았다.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등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지적 방향을 겪어야 했다. 어느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누구와 토론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도 했다. 본인 성향대로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의 학자와 정치인, 재야인사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선 캠프 인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경제 쪽에서는 이정우의 역할이 정

청와대에 집단 브레인 체제 구축 수시로 묻거나 관련 리포트도 요구 운동권적 사고 한계, 학습으로 극복 노무현의 진정한 스승은 책과 토론

권 출범 전후로 돋보였으나 그 역시 선생은 아니었다. 노무현이 당시에 추구했던 경제를 ‘정의로운 경제’라고 표현한다면 이정우는 정의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표방하는 데 참여정부가 내세운 상징적 존재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김병준과의 지적 교류가 돈독한 편이었다. 일찍이 자신이 만든 지방자치실무 연구소에 김병준이 참가하면서 교본을 쌓았고, 현실 정책 면에서도 단골 토론 상대였다.

하지만 ‘대통령 이전’의 노무현은 결코 다듬어진 지식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운동권식 거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심지어 대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은 반미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의 학습 능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 인수위 활동을 경험하면서 이내 운동권 논리와 네트워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선택은 집단 브레인 체제였다. 자신을 공부시켜 주고 국정을 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줄 분야별 전문가들을 싱크탱크 삼아 곁에 뒀다. 보좌관들은 ‘머리’, 수석은 ‘발’에 비유했다. 종래의 청와대 내 보좌관 제도는 필요에 따라 생겼다가 없었다 해 왔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 제도와 병립해 분야별 보좌관 제도를 불박이로 설치

■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21일 청와대 관저에서 책을 읽고 있다. 독서는 노 대통령의 평생 스승이나 다름없었다. ■ 2016년 5월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지붕 낮은 집’의 서재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노무현사료관, 중앙포토]

한 것이다. 반기문 외교, 김희상 국방, 라종일 국가안보, 조윤제 경제, 김태우 과학, 정찬용 인사 등 6명의 보좌관 라인업이 꾸려졌다. 수석비서관들이 관련 행정부처들을 상대하는 행정 조직이라고 한다면 보좌관은 대통령을 상대하는 자문조직, 또는 가정교사 역할이라 할 수 있었다.

경제보좌관이었던 조윤제의 말을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브레인 집단을 활용했는지 가능해 보자.

“취임 이후 시간을 쪼개서 경제 현안별로 1대1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10회 정도를 예정했는데, 대통령의 바쁜 일정 탓에 세 번밖에 못 했지요. 그러나 수시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오거나 관련 리포트를 요구했습니다. 납득이 될 때까지 꼬치꼬치 캐물 때는 진땀을 나지요. 보고서가 길고 시간이 걸릴 때가 더러 있었는데, 한 번도 재촉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무리 긴 보고서라도 꼼꼼히 읽고 나서 꼭 회신해 줬고요.”

대통령의 일과는 짜인 공식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짝이 없다. 갖가지 보고서를 관저로 싸 들고 퇴근해서 읽어낸다.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나오면 즉시 전화로 물어본다. 노무현식 공부 방법이다. 아무튼 청와대 보좌관들을 대통령의 선생님 그릇이라 하기는 어색한 점이 많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릇,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원래 그는 누구한테 배워서 익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혼자서 깨우치고 터득하는 독학의 아이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의 진정한 스승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독서와 토론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는 보고서든, 두꺼운 책이든 많은 분량을 빨리 읽어내는 속독법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토론을 즐겼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무슨 주제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다. 책과 논쟁이야말로 노무현의 평생 스승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장규·손병수·박유미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그제 국회 운영위에 나온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닭 가공업체를 창업해 민간의 현장에서 자수성가를 이룬 정치인이다. 더구나 재선의원 출신인데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도대체 이 기자 질문의 어떤 대목이 무례하다는 것인가. 기자는 대통령이 발언하면 그냥 받아적기만 해야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 다시 물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대통령이 기분 나쁘시기 때문이란 얘기인가. 7일 회견은 대통령실이 시간이나 분야·개수 제한 없이 ‘끝장토론’을 한다고 밝혔던 이벤트다. 하지 말라는 질문을 기자가 억지로 던진 것도 아니고, 추가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한 것뿐이다. 그걸 보고 무례했다니,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인지 헛갈릴 정도다. 오히려 언론계에선 이 질문이 회견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긁어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무수석 ‘기자 무례’ 발언 군사정권 시절 연상 대통령 심기 경호 열중하면 민심 전달은 잘 될까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만큼은 언론의 취재원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 하면 안 되는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존재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례로 따지자면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이야말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이들이다. 1998년 김대중(DJ)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때 미국 기자가 클린턴에게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라고 물어 옆에 있던 DJ가 민망해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홍 수석의 발언이 대통령실 전체의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국감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비판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맞받아쳐 소동이 일었다. 그 자리에서 정 실장은 “유럽도 지지율 20% 넘기는 정상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명태균씨 사건에 관한 한 지금 대통령실은 큰 소리를 칠 구석이 전혀 없다. 국민에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국정 쇄신을 다짐해도 시원찮을 형국이다. 그러나 요즘 용산 참모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 심기 경호는 엄청나게 신경쓰는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

심상찮은 IMF의 경고,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할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2.2%로,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2%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IMF 한국미션단은 어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한국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떨어질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IMF는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정상화와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천천히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나라 곳간의 사정을 보가며 하라는 얘기다. 당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통화정책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하다.

금리 인하로 가계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면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었다.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IMF의 지적처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IMF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회복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우선

순위로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어제 보도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매년 4만 명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총력이지만 AI 분야 전공자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의 6%뿐이라고 한다. IMF는 혁신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혁신 연구개발(R&D)의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고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 지적은 IMF의 단골 메뉴다. 답은 뻔히 알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 해묵은 과제들이다. 지금처럼 당장 쓸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이 없을 때일수록 규제 개혁이 더 간절하다.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규제를 없애는 것 자체가 감세 정책이자 경기 부양 정책이다.

트럼프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소인국에 간) 갈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눌려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고 썼다. 움짤달락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진저리를 쳤던 머스크의 미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섰다. 자유를 그토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개혁이 얼마나 진전될지 많은 이가 지켜보고 있다.

공짜 골프는 없다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1 50만 엔(당시 환율로 약 520만원)짜리 일본 혼마제 금박지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받은 트럼프는 신났다. 상사에서 채를 꺼내더니 바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행을 배웅하는 엘리베이터 안. “그런데 총리는 골프 핸디가 얼마?”(트럼프), “난 18(스코어 90), 도널드는 최고기록이 얼마?” “66. 우리 다음에 꼭 같이하자고. 팜비치도 좋고, 도렐(마이애미)도 좋고, 아니면 틸베리(스코틀랜드)도 좋고...” 2016년 11월 17일 트럼프타워를 방문한 아베와 트럼프의 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골프 관련 이야기 하나 더. 아베가 생전에 털어놓은 비화다. “트럼프와의 첫 골프 라운드의 1번 홀 티샷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생 최고의 샷이었다. 230야드, 스코어 91로 트럼프에게 졌지만, 생애 최고의 라운드였다. 트럼프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20번 식사하는 것보다 골프 한 번이 훨씬 효과적이다” “트럼프는 드라이버도, 우드도 하여간 세계 천재. 거러도 많이 나간다. 그래서 난 하이티 티, 트럼프는 뒤의 골드 티에서 쳤다. 무엇보다 놀란 건 퍼팅 실력. 기가 막혔다. 일단 무조건 홀컵을 지나가게 쳤다. 그러면서 ‘내 인생과 같다’고 하더라. 일단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의 성격과 골프 스타일이 똑같더라. 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2 하지만 ‘골프 외교’에는 대부분 ‘꼬리표’가 있었다. 라운드 예정 2주 전인 2017년 1월 28일 트럼프가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워싱턴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이런 날에 골프하는 X는 없다.” 순간 아베는 “아, 골프하자는 이야기는 역시 인사치레였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후나바시 요이치, 『숙명의 아이』 13장). 트럼프의 이어지는 말. “하지만 미 남부에 더 좋은 내 골프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도록! 그건 그렇고, 토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승용차를 생산할 용도의 공장을 10억 달러 투자해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미국에 건설하는 쪽으로 바꿔 주면 안 되나? 신조가 ‘미스터 토요타’에게 직접 좀 이야기해 봐.” 아베는 옛새 후 토요타 사장과 극비리에 만났다. 그리고 토요타는 “미국에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투자액의 무려 10배였다. 2월 10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도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고용을 100만 명 창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공짜 골프는 없었다. 아베는 기꺼이 그 돈을 냈다. 골프를 안 했어도 내야 할 돈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3 현 상황을 보면 한·미·일 관계의 기상도는 ‘흐림’이다. 우선 미국, 트럼프는 초반에 확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동맹이고 뭐고 없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엔 조기 회담에 실패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한국과 관

아베와 골프로 관계 튼 건 맞지만 교묘히 대미 투자, 고용창출 요구 골프는 덤, 핵심은 ‘덜거리’ 마련

계를 개선하라”고 일본에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예측 불가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김정은에게 “에어포스 원으로 평양에 데려다 줄까?”라고 했던 건 그렇고 마찬가지다. 정치적 기반도, 지지율도 시원찮은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와 밀당할 재주도, 유연성도 별로 없다. 사실 아베가 트럼프와 가까웠기에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본능을 적극 막아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일본엔 아베가 없다. 한국은 더하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거리감과 한국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대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다시 ‘골프 외교’. 물론 연습도, 준비도 좋지만 그건 결정된 뒤 해도 된다. 아베도 그랬다. 오히려 미스샷을 연발하고 모래로 나자빠지는 ‘빙커 굴욕’ 뒤 트럼프와 더 친해졌다. 골프는 덤이다. 중요한 건 트럼프와 뭘, 어떻게 주고받을지다. 기업들마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다른 묘책을 시급히 궁리해야 하지 않나. 여차피 앞으로는 공짜 골프는 없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bulman@joongang.co.kr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제1차) 계약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社,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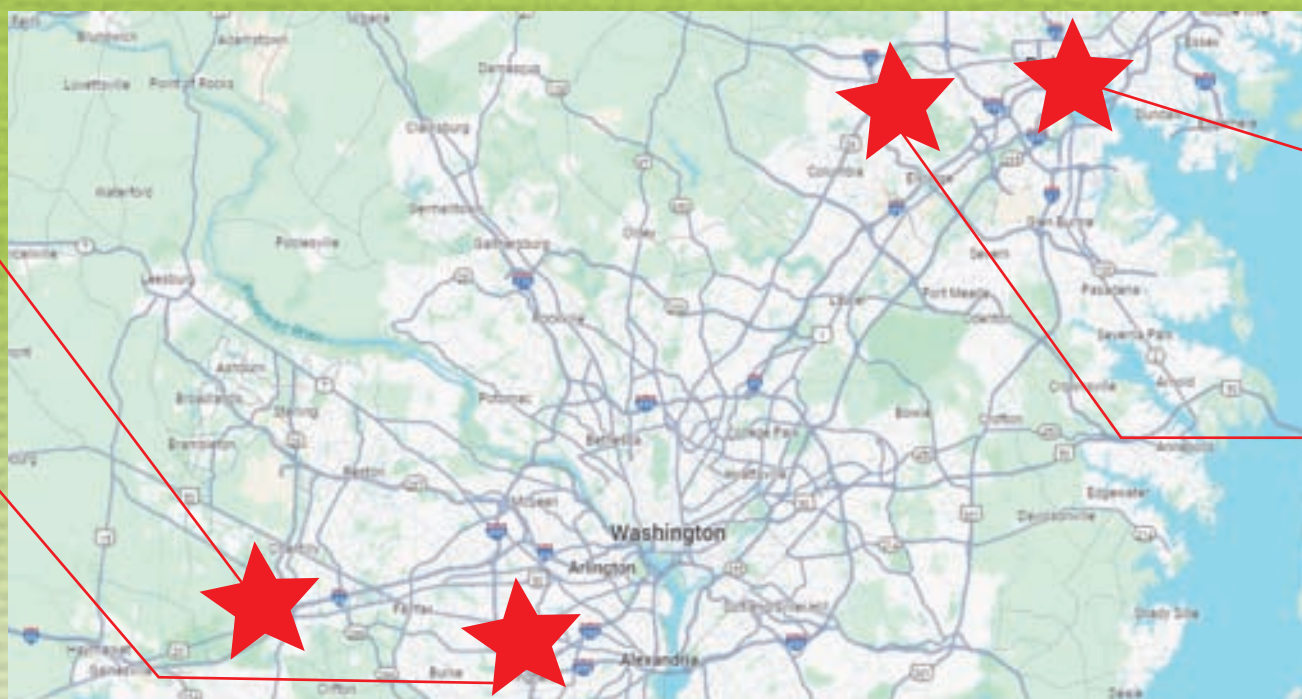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er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NOV. 21st - NOV. 28th, 2024

추수감사절 실속있는 선물

DONG WON 동원참치

선물세트 스페셜

THANKSGIVING **DONG WON** TUNA GIFT SET SPECIAL



동원 선물세트
라이트 참치 캔 (10캔)
+ 고추참치 캔(4캔)
Light Standard Tuna (10Can)
+ Hot Pepper Tuna (4 Can)

\$29⁹⁹

\$19⁹⁹
14X3.17 OZ

실속 가득~~!

동원 선물세트

라이트 참치 캔 (6캔)
+ 카놀라 오일(1병)

Light Standard Tuna (6can) + Canola Oil (1 Bottle)

\$19⁹⁹

\$12⁹⁹
7PC



편입종 오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Folsom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800 Centreville Coa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rlottesville, VA
13855 Melrose Dr.
Charlottesville, VA 20151

Annandale, VA
5204 Pit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ernside Hill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310 Dan Street
Herndon, VA 20175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88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22 Vei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7271 Ma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November 21,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집값 싸고 관리 편한 소형 주택 인기

최근 몇 년간 국내 신규 주택 크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넓고 큰 주택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리스팅들은 중소형 주택들이 인기다. 연방선서스국에 따르면 올 2분기 동안 건설 중인 단독 주택의 평균 면적은 2375스퀘어피트로 이는 2023년 2분기의 평균 2455스퀘어피트와 2022년 2분기의 2535스퀘어피트 비해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주택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높은 집값, 가족 구성원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최근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주택 사이즈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원인
주택 크기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높은 집값 때문이다. 지난 7월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 중간 판매가는 42만260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0만5600달러보다 4.2% 상승한 수치다.

또 8월 기준 주택 중간 판매가는 전년동기 대비 3.1% 상승해 41만67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 이처럼 전반적인 물가 및 집값 인상 여파로 많은 바이어들이 집값이 저렴한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 역시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작은 집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다 보니 더 이상 큰 집이 필요치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니어



주택에서 남은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베이비부머와 저렴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unsplash.com 제공]

높은 주택 가격, 물가, 모기지 영향 신규 단독주택 사이즈 갈수록 줄어

들이 노후를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미국인의 77%가 노후를 자택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답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가 큰 집보다 용이한 작은 집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작은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 생활에 지친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은 집값이 싸고 관리가 편리한 소형 주택 구매를 원한다”고 전했다.

▶현황
이처럼 선호하는 주택 크기는 줄었지만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집에서 실용성과 편리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젊은 홈오너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경제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보다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작은 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보다 일상을 단

순화하기 위해 세대 불문 작은 집에 살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주택 관리보다 휴식 및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작은 집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장단점
작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경제성에 있다. 규모가 작은 집은 집값부터 재산세, 보험료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큰 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지비 및 냉난방 비용도 덜 든다. 그러다 보니 생업으로 바쁜 홈오너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보다 관리가 손쉬운 작은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작은 집의 가장 큰 단점은 제한된 공간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 4면 '소형주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www.부동산학교.com
6주 숙성반
www.뉴스타부동산.com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5. \$2,300,000 옥톤 새 싱글
6. \$2,200,000 맥클린 싱글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4. \$1,325,000 포트맥 싱글홈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코인에 대한 생각 뒤집어라” 트럼프는 금처럼 비축한다

“우리에게 비트코인 대통령이 생겼다.”(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그야말로 코인 투자자들의 호황기다. 호재는 쭉 이어져 왔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역사상 첫 친(親)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에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1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9만3000달러(약 1억2948만원)를 넘겼다.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30%가 넘고, 트럼프 당선 확정일에만 샀어도 25% 올랐다. 지금 ‘코인 불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래픽=김호준

트럼프 관련 종목은

솔라나	SOL	현물 ETF 등장 가능성 상승
리플	XRP	현물 ETF 등장 가능성 상승, SEC 의장 교체시 SEC와의 소송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음
라이트 코인	LTC	현물 ETF 등장 가능성 상승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WLFI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음, 모집에서 부진을 겪음
에이브	AAVE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활용하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
도지코인	DOGE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함
리도	LDO	디파이 스테이킹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 리퀴드스테이킹이 활용될 가능성 있음
코인베이스	COIN US	트럼프 및 공화당 측에 대규모 후원,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USDC 공동 개발
서클	비상장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상장 희망

자료: NH투자증권

트럼프는 1기 행정부(2017~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단속하라”며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트럼프가 느닷없이 ‘암호화폐 업계의 수호신’이 된 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젊은 유권자를 향한 정책적 차별화를 위해서였다. 이런 변화가 불러일으킨 코인 랠리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전망이다. 과연 코인은 지금이 고점일까? 어디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떤 암호화폐와 업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흥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

의 강동현 연구원과 함께 진단해봤다. 우선 트럼프의 암호화폐 주요 공약을 점검해 보자.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획득할 모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발의한 ‘비트코인 비축법’엔 미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게리 겐슬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하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채굴 기업에도 우호적인 손길을 보였다. 흥성욱 연구원=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나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알트코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증권성 리스크’였다.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등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는 증권법 위반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인 업계 운신의 폭이 좁았다. 만약 미국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면 알트코인이 산업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규제 리스크로 진입을 꺼리던 금융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수 있다. 또 증권성 리스크가 완화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코인의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강동현 연구원=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는 ‘초크포인트 2.0’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 입장과 SEC의 고소·고발로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 환경이 해소되면 올해 주목받았던 밈코인(Meme coin)보다는 그간 위축됐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글로벌 광통화량(M2) 확장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트럼프 2기의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알트코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선 ‘유니스

왓(Uniswap)’ 등 1세대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1세대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거버넌스) 토큰 분배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알트코인 거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DEX(탈중앙화 거래소) 분야, 특히 현물 및 영구선물(perpetual-만기일 없는 선물 계약) 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DEX의 거래량과 수익은 디지털 자산 가격이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탈중앙화 금융시장 규모는 현재 1000억 달러 미만이지만, 2026년 말까지 7000억 달러(약 984조원)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트럼프는 대선 직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라는 이름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출범했다. 이 플 /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중산층의 집이 사라진다... 미국식 포용주택으로 해결하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12억5500만원이고 하위 10%는 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를 염려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비롯한 의왕·고양·의정부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과연 거기에 지어지는 집들은 내 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격일까'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공급을 늘려도 중산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로 집값이 높다면, 고소득층만 주택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된다. 주택 자산 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때 자산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집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실시된 케이트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의 2022년 주택 부담 가능성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자기 지역에서 집을 살 여유가 없다고 답했고, 69%는 자신의 자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소득 집단의 한 가운데인 '중위(中位)소득'의 2배를 버는 가구도 주택을 살 여유가 없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은 나름 저렴한 중위가격 주택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회에 중산층이 자

용적률 높이고 싸게 지속 공급
지자체가 주도해 건설사와 협상
현 분양가상한제, '로또'만 양산

기 소득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포용주택(Inclusionary Housing)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3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포용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발업체는 주택을 시세대로 판매하지만, 정부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주택 중 10~20%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말하자면 100채를 지을 곳에 150채를 짓고 그중 30채를 지역 중위소득 60~120% 가구에 판매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은 포용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는 개발 시 주자 요건, 공용 구역 요건, 부지 면적 제한 및 건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2010년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전체 주택 중 20%를 지역 중위소득의 50~120%인 가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주택 공급 늘리려 규제 철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수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선 지자체가 주도해 중산층용 포용 주택을 공급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립해야 한다.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자기 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건설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1만 가구였던 건축 예정 물량이 1만4000가구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그중 2000여 가구는 30% 싼 가격으로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에 공급할 수 있을지를 건설사와 협상한다.

우리는 왜 중산층이 구매 가능한 집, 중위가격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제는 가격을 이야기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원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건설 자재값이 낮아질 수 없다면,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서리풀 지역의 인근 아파트 가격은 신축기준 3.3㎡당 6500만원 수준이고,

경기도 고양시는 신축기준으로 3.3㎡당 3300만원 정도다. 시세대로면 서리풀은 20평형대 기준으로 13억원 수준, 고양시는 6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서리풀지역 2만 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1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 가구에 포용주택을 적용해 보자. 용적률 인센티브로 1만 2000가구를 짓도록 하고 그중 10~20%인 1200~2400가구는 30% 낮은 가격, 즉 9억원 정도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 1200~2400가구에 대해 '로또'라는 비관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서리풀 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분양하면 포용주택과 값이 비슷하거나 낮은 1만 가구의 로또가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된 강남 세곡보급자리 주택은 평균 50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 정도 수요층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며 구매를 미루게 되

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등 주택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대지 지분 낮춰 가격 상승 제한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이 계속 저렴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야 뒤이어 오는 중산층이 저렴하게 재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정상 가격에 매매되는 아파트들보다 일정 수준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당 아파트들은 가격이 급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포용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강남권 로또 청약처럼 현급 부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서울 25개 구 각각 자신들 지역에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들이 그들의 월 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즉 마구잡이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을 세울 것을 강제하는 조례를 시 의회와 구 의회에서 입안해야 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수연=공시가격 제도와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해왔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등을 저술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일종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WLF는 거버넌스 토큰 WLF1을 발행해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회사가 WLF 순이익의 75%를 받기로 한 데다가, WLF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 운영했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WLF1 판매량은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3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WLF는 향후 자체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할 계획인데, 트럼프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작성 입장을 내놨었다.

홍성욱=테더의 USDT(미국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의 일종) 같은 경우, 미국 역의 업체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라 미 정치권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역의 업체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는 미국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더 수혜를 볼 것이다.

강동현=거래소, 결제 대기업 등의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참여가 예상된다. 페이팔이 'PYUSD'(달러 기반 스

테이블코인)를 출시하고 결제사인 '스트라이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을 인수하는 등 결제 대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로빈후드' '크라켄' 등 거래소에서도 USDG(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팍소스'가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를 출시 예정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저축이나 거래를 하고,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6년 말까지 약 1조 달러(약 140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볼 암호화폐나 분야도 주목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실사용 사례와 연관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솔라나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초과할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실사용 사례를 살펴볼 때 ▶게임과 토큰화(실물 자산·권리를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 분야 ▶초기 단계인 '탈중앙화 물리인프라 네트워크' 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꼽았다. 번스타인 역시 규

제 환경이 완화하면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을 전제로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20만 달러(약 8204만원), 이더리움은 1만 달러(약 1400만원)로 제시했다. 번스타인도 대선 이후 보고서에서 "규제 우려로 암호화폐 노출을 꺼려온 투자자들에게 사고방식을 뒤집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 1. 윗브리지 타운홈
-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 4. 매나사스 타운홈
-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ACA 2025 오바마 보험 가입 및 플랜 변경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15일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이중 특별 필요 플랜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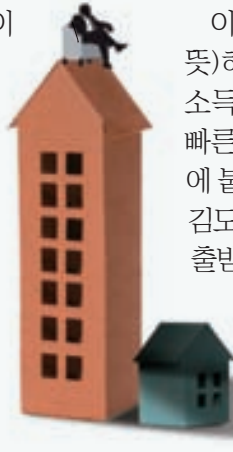
12.5억 vs 3100만원 집값상·하위 10% 격차 40배 이상 달해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보다 4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주택 자산가액(2024년 1월 1일 현재 모든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 기준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이고, 하위 10%는 3100만원이었다. 절대적 금액 차이는 12억원을 넘고, 상대적 차이는 40배를 초과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 통계를 모아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의 상대적 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50배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고, 2022년 40.53배로 완화한 뒤 지난해 40.48배로 더 떨어졌다. 다만 절대적 금액 차이는 2021년 14억5400만원에서 2022년 11억8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2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산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다른 통계에서도 자산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총자산-부채) 지니계수는 2018년 0.588→2019년 0.597→2020년 0.602→2021년 0.603→2022년 0.606으로 매년 늘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지난해는 0.605로 떨어



졌지만, 낙폭은 미미하다.

반대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완화 흐름을 보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345→2019년 0.339→2020년 0.328→2021년 0.329→2022년 0.324로 매년 떨어졌다.

2022년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이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뜻)해 집을 사는 흐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탓에, 어떻게 해서든 자산 피라미드 상단에 불기 위해 최대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면 집 한 채를 살 때 10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비중이 6.12%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국가 전체

의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59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보통 관련 수치가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 소유자 수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30만9000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30세 미만(-2만2000명)과 30대(-6만1000명) 주택 소유자 수는 감소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영끌에 나선 2030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고금리 흐름 속 대출 원리금 부담을 못 버티고 집을 내다 판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5.0%(233만9000명)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김민중 기자

▶ 1번 '소형주택'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기능성 혹은 다목적 가구가 젊은 홈오너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모듈형 혹은 다목적 가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또 집을 설계할 때 벽 공간을 불박이장으로 이용거나 식탁을 작업용 테이블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인 설계와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은 사이즈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 다만 홈오피스가 있는 넓은 집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과 구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전망

최근 한 건축 업체 조사가 따르면 신규 주택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작아질 전망이다. 존번스리서치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건축된 주택의 43%가 1년 전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지어졌다. 또 이번 설문에 참가한 건축업체들은 지난해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주택을 계획할 가능성이 전년보다 4배나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존번스리서치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설계한 프로젝트의 27%에 대해 이미 크기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최근 높은 집값으로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건축업체들의 가장 현실적인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값과 별개로 미니멀리즘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집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분당만 뜨거운 재건축... '승자의 저주' 걱정도



이달말 선도지구 발표

선도지구 뿔히려 공공기여 더 쉰내 중동·산본은 사업성 낮아 시큰둥

정부가 이달 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격인 선도지구를 발표한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지자체별로 1~2구역을 추가하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기다려온 재건축인데도 지역마다 "선도지구가 돼도 걱정"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춤한 데다 몇 년 후 재건축 사업성을 장담하긴 더 어려워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은 서울 강남과 가깝고 학군 등 입지가 좋아 일찌감치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요즘 주민 사이에선 선도지구가 돼도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분당은 이 지역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가운데 47곳이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선정 물량이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인데 7배가 넘는 5만90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신청 구역

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이면 선도지구 평가점수 100점 중 최대 60점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 일찌감치 동의율 95%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단지가 많다.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줄어들자 주요 단지의 공공기여 등 성명시가 선도지구 평가 항목에 추가한 가산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 장수명주택 인증(3점), 이주대책 지원(2점) 등 가점 항목을 대거 신청하면서. 문제는 가점 항목이 늘수록 사업성이 훼손되고, 공사비 상승 요인이 커져 주민 부담금은 올라가는 구조란 점이다. '일단 선도지구가 되고 보자'에 풀베팅했다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분당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12일 "가점 항목을 추가해 자체 분석한 결과 분담금이 84㎡ 기준 가구당 최소 1억원 추가되고 착공 땀 더 늘겠더라"며 "주민 반발이 우려돼 줄이는 쪽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엔 선도지구가 못 되면 재건축이 기약 없다는 '공포' 탓에 가산점을 최대한으로 계산해 신청한 단지도 꽤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정자동에서 만난 한 50대 주민은 "달적 선도지구 선정됐는데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이걸 무를 수도 없고 주민 갈등만 커질 판"이라 말했다.

일산은 반대로 사업성이 안 나와

주민이 폭발 직전이다. 지난 주말엔 200여 명의 주민이 일산동구청 앞에 모여 '일산 시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고양시에 기준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항의했다. 앞서 각 지자체가 제시한 재건축 기준용적률(아파트 기준)은 일산이 300%,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다. 현재 평균용적률(일산 169%·분당 184%) 대비 일산이 분당과 비교해 용적률 상향이 적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은 통상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일반분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인다. 일반분양을 많이 늘려야 조합원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산은 분당 등에 비해 집값도 높지 않은데 용적률 상향도 안 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일산 마두동 강촌마을1단지 30평대 평당가격이 2030만원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는 5200만원대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평당 가격이 낮아 분양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민은 분담금 폭탄 우려가 가장 크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분당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 8월 17억3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올 초만 해도 13억원 후반~14억원 초반대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가격이 3억원 이상 올랐다. 반면 일산·평촌·산

본·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민동의율도 만점인 90% 넘는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다. 집주인은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3단지 현대는 역대 최고가 대비 80~88%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집회에서 만난 한 60대 주민은 "재건축 핵심이 용적률인데 일산이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다"며 "선도지구가 돼도 주민 분담금이 커서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희 일산재건축추진협의회 임시위원장은 "고양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면 30평대 기준 가구당 최소 3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평촌(204%)·중동(226%)·산본(205%) 등은 현재 평균용적률 수준이 높다 보니 분당·일산에 비해 애초에 사업성 기대가 낮은 편이다. 그나마 집값이 받쳐주는 평촌에선 선도지구 선정 기대감이 있지만 중동, 군포는 대체로 '정중동' 분위기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로선 분담금 추정이 어려운 데다 공공기여 등 변수까지 많아 주민이 '깜깜이' 경쟁을 하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공기여 관련해 세부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김원·조수빈·전용 기자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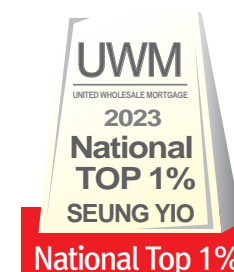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 2019, 2020, 2021 and 2023 5년 연속 수상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독점 매물 \$49만불

옥스힐/매릴랜드
MGM 카지노에서 10분거리위치한 싱글홀,
방4개 화 3, 차고 1. 모두 수리된집

17년 부동산 경력의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선정
16년 연속 탑 에이전트의 풍부한 부동산 경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촉을 늘 감지하는 비키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부동산 투자 실수가 없습니다.
셀러, 임대주택 렌트 - 모든 온라인매체에 광고 노출을 제일
많이하며, 빠른시일내에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어 대기 - 센터빌, 페어팩스에 위치한 깨끗한 콘도 매물 찾습니다.



독점 매물 \$68만불

우드브릿지 싱글홀
2005년 지어진 깨끗하고 잘관리된집
방4개 화 4.5 차고 2 렌트도 가능



독점 매물 \$57만불

알링톤 콘도
방2/화 2 모두 수리된집, Clarendon
메트로역에서 1 마일, 펜타곤과 인접집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와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 즉시입주 가능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악착같은 부동산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CBRE Korea
Desk 대표

트럼프와 상업용 부동산

연방 지출 정책 시행 부동산 투자자 비용 높아
소비재 관세 인상 리테일 부동산 수요 감소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상업용 부동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지출, 무역 정책, 세금, 이민 규제 같은 주요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의 상원 장악을 바탕으로 연방 지출 확대와 관세 도입, 세금 감면 연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 지출과 적자

와튼 비즈니스스쿨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방 지출 정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방 적자는 최대 4.1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장기 금리를 상승시켜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융 비용 증가와 수익률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역 정책과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더스트리얼 부동산의 단기적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 이전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물류 및 창고 임대 수요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이 커져, 미국 내 공급망과 상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의 안정성

2017년 세금 감면 법안의 주요 조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1031 세금 면제 조항이 지속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 정책과 노동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는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걸쳐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상업용 부동산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문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 세금 감면과 법인세율 안정성은 기업이 임대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인더스트리얼: 단기적으로 관세 인상 전 재고 확보 수요 증가로 인해 임대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세가 수요를 감소시키고,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수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리테일: 소비재 관세 인상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유발해 리테일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혁
퍼스트트럼 부동산

주택 매매 유의사항

인스펙션 대비 안전 관련 항목 수리 필수
정확한 가격 책정 매매 기간 단축에 중요

인터넷을 통해 매물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전문가급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달라진 바이어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사전 준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고객들이 까다롭게 보는 것이 바로 주택 상태이다. 구입 경쟁이 치열한 주택 특징은 꾸준히 주택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내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거주용으로 오랜 기간 관리가 잘 된 주택들은 정원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유틸리티 비용과 관리비 상승으로 잔디 면적을 없애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당한 규모의 잔디를 포함한 조건은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주택을 둘러싼 나무는 잘라내거나 정기적인 트림 작업이 필수다. 중간 주택가격 이상이고 최소 8000스퀘어피트 정도의 땅이 있다면 일정 규모의 수영장 설치 또한 고려 대상이다. 추가적인 계단 설치나 심플하고 관리가 편한 조경은 주택 외관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다.

여유 있는 수납공간, 주방 캐비닛 추가, 아일랜드 설치와 더불어 거러지 내부에 추가 수납이나 바닥 업그레이드도 중요하다.

오래된 주택 경우 세탁장 위치가 주차장이 아닌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도 관리가 잘된 주택으로 바이어들에게 인식된다.

사이즈가 적은 콘도나 구조가 폐쇄적인 오래

된 주택 경우 오픈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스테이징을 통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 주택 구매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구와 더불어 그림과 추가 조명을 많이 활용하거나 세련된 가전 제품을 배치해주는 게 좋다.

사전에 인스펙션해서 주택 문제를 최대한 알아내고 이를 오픈한 바이어 측에게 제공하거나 사전에 열람하게 해 주택 상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안전에 관련된 항목들은 반드시 사전에 수리를 해주는 게 감정이나 인스펙션 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관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밸류 책정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 지역의 경험 많은 로컬 감정사를 통해서 대략 주택 가치를 평가한 후 리포트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용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최소 두 개의 감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정확한 가격 책정은 주택 매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외곽지역에서 중간 가격을 상회하는 고급 주택 경우 감정사와 리스팅 가격의 차이가 작아야만 합리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브로커와 일반인을 위한 오픈 하우스를 시간을 두고 열어 최대한 노출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주택 거래 대부분은 오픈 하우스를 통해서 거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투자의 수익

부동산 투자 기본은 임대 수익과 가치 산정
캡, GRM으로 정확한 부동산 가치 평가 중요

수입이 나오는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의 가치상승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 되지만 매월 예상되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만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생길 가치상승도 좋지만 당장 매달 조금씩이라도 현금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다른 수익성 부동산보다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유닛 등 주거용 부동산 투자다. 그러므로 사려는 부동산의 수익성이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임대수입이 얼마이고 용자를 했을 때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난 후의 금

액, 정해진 수입에 비해 어떠한 비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는 유닛이나 아파트를 비롯한 렌트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값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하는, 가격 산정 시 필요한 정보나 용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 년의 총수입(Annual Gross Income)을 계산하는 데, 여기에 테넌트들이 내는 렌트와 함께 부대 시설인 세탁장, 작은 창고나 여분의 주차장이 있다면 이런 시설들에서 나온 수입을 모두 합하여 연 총수입이 정해진다.

그리고 일 년 총지출(Annual Expenses)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하다. 우선 기본적인 지출의 중요한 항목들은 재산세, 화재보험을 비롯한 보험료, 상하수도세, 공동시설에 드는 전기나 가스비, 정원관리비, 각종 수리비, 쓰레기 수수료, 관리를 전문회사에 맡길 경우의 관리



비 등이 있다. 이제 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면 순수입(Net Operating Income)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는 현재 들어오는 수입과 함께 매년 인상되는 렌트비로 인한 수익 증가, 부동산의 가치 상승, 건물의 감가상각에 의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상승과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캡(Capitalization Rate)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캡은 GRM(Gross Rent Multiplication)과 함께 부동산의 가치 산정에 쓰이는 용어이다.

먼저 캡은 부동산의 가치와 투자대상에서 나

오는 순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모든 경비를 공제한 연 순수입이 10만 달러가 나오는 부동산이 200만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면 그 매물의 캡 레이트는 5%이다. 요즘 LA한인타운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캡이 4.5%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적당한 가격산정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GRM이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연 총수입에 비례한 '배수'를 얘기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단순비교할 때 종종 사용한다.

다르게 풀이하면 부동산의 가격을 일 년 렌트수입으로 나눈 숫자가 GRM이다. 즉 150만 달러짜리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일 년 동안의 임대수입이 10만 달러라면 그 매물의 GRM은 15가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같은 10유닛 아파트라도 방과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만 있는 아파트의 가치와 방이 2개 이상인 유닛이 주를 이루는 아파트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미셀원BEE부동산부사장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SOLD</p> <p>Hanover</p> <p>\$580,000</p> <p>타운홈, 방3,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Laurel</p> <p>\$589,000</p> <p>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p> <p>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65,000</p> <p>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575,000</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Catonsville</p> <p>\$395,000</p> <p>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15,000</p> <p>타운홈, 방3, 화3</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p> <p>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UNDER CONTRACT</p> <p>Jessup</p> <p>\$389,000</p> <p>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p> <p>콘도, 방2, 화2, 1,438sf</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p> <p>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p> <p>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p> <p>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p> <p>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p> <p>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p> <p>콘도 방2, 화1</p>
--	--	--	---	--	---

US이주투어 **아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 23-24년 새 VVIP 버스운영!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북프랑스+벨기에 7일 ▶ 12/22 \$2299+항공료
파리,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브뤼셀 그랑팔라스, 루앙, 옹플뢰르, 몽생미셸 내부관람과 야경(외관) 등
풀만/힐튼 특급호텔, 몽생미셸 숙박, 화려한 XMAS 야경, 유럽최대명품아울렛/사마리텐 백화점 쇼핑

이태리 1주일 7일 ▶ 12/25 \$1999+항공료
서유럽 11일 ▶ 12/21 \$3399+항공료
핵심 7일 ▶ \$2299+항공료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40th ANNIVERSARY **꿈결 같은 여행 40년! 아주투어 40년!**

아주투어가 올해로 창사 4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1984년부터 한결같이 미주 한인들을 위해 내달려온 40년 고객 여러분과 함께한 40년은 아주에게는 꿈결 같은 여행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아주는 창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세계일주! 매달 스페셜 투어를 선보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튀르키예(터키) 완전일주 10일 ▶ 12/9 \$1299+항공료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 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인 나라
고귀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볼거리가 너무 많은 나라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 나라
튀르키예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나라

참사 40주년 빅 이벤트
여태까지 이런 요금은 없었다!

이스탄불(툭카프궁전, 성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히포드롬 광장), 카파도키아(괴뢰에 야외박물관, 데린쿠유, 파사바 계곡, 비둘기 굴짜기), 콘야, 페르게, 안탈야, 파묵칼레, 에페소(원형극장, 스크라스티카 목욕탕, 하드리아누스 신전, 에페소 교회, 사도요한의 교회 및 무덤, 아르테미스 신전, 버가모 교회), 아이발록, 입살라 등

아프리카+UAE ▶ 2/26/2025(1차 마감), 10/15 가이드 동행! **아주관광 단독팀 보장** **초특급 사파리 패키지!**

2차 모집! 11/30까지 예약자 한정

세렝게티 국립공원 & 옹고옹고롱 국립공원 사파리
아랍에미레이트, 케냐, 짐바브웨, 보츠와나,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공 7개국
현실!! Victoriafalls 직항 2일 절약! 사파리 항공이동 1일 절약!

빅토리아폭포 최고급 호텔인가 확인!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맛집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ابل카

항공료가 없는 상품은 LA 출발 상품입니다!
타도시 출발시 항공료가 적용됩니다!

멕시코 크루즈 5일 ▶ 2/2/2025 \$469

인솔자 동행! 세금 포함

2020년 리노베이션한 10만톤 승무원수 1,108명, 총탑승객수 2,984명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알래스카 8일 ▶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499+항공료

22년 디스커버리 프리세스호(14만5천톤) 가이드 동행, 유람선+배낭+항만세 포함

시애틀, 주노, 스카그웨이, 클라시어베이, 케지간, 빅토리아 섬, 시애틀

바하멕시코 5일 ▶ 2/2, 4/28, 5/12 가이드 동행 \$499

▶ 1/23, 2/25, 6/3, 7/15, 8/12, 9/9, 10/2 가이드 동행 \$549

서지중해발코니 10일 ▶ 3/26, 10/31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3099

웨스턴카리브해 8일 ▶ 5/24, 8/27, 10/10 가이드 동행 \$1099+항공료

남태평양 ▶ 12/11, 2/11/25, 3/18, 4/9 \$3799+항공료

아주 남태평양투어가 명품인 이유?

1.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
2. 최고의 만족도
3. 항공이동으로 버스 타는 8시간 절약
4. 최고급 식사와 맛있는 특식
5. 반딧불의 재능 촬영지
6. 지상의 천국 피지
7. 반딧불 중괄 포함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VIP 버스
2. 초특급 5a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에서 해바라기 2기원베 심명기 무료공연 중

제주+모국일주 10일 ▶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 \$2499+항공료

정통미서부

라스베가스 2박/트레이즈 아일랜드 호텔

아주단독! 32인승 24년 새 VVIP 버스!
다수의 24년형 새 V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아주단독! 스피어는 아주와 함께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한인 컨트랙은 아주 뿐!

아주단독!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국립공원과 컨트랙으로 아주만 방문합니다!

명품유럽 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북/서유럽 2인입체 가이드 전일정/전구간
함께해 인솔자가 교통의 니즈를 바로바로!
CST기밀 & 보행구도 꼭 확인!

엘리버드 유럽 스페셜 \$700 엘리버드 DC 12월 31일까지 예약시

\$700 할인 찬스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 \$5999 ▶ \$5299+항공료

\$700 할인 찬스 북유럽 4개국 11일 ▶ \$4999 ▶ \$4299+항공료

\$200 할인 찬스 발틱일주 3개국 6일 ▶ \$2199 ▶ \$1999+항공료

제주 3일 ▶ \$499+항공료

서해/제주 7일 ▶ \$14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 \$999+항공료

동해/제주 6일 ▶ \$1299+항공료

미서부 완전일주 7일 ▶ \$1469+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엔텔로프캐년 4일 ▶ \$809+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 \$1339+항공료

미서부 대표 관광지 총망라!
아치스 국립공원, 모뉴먼트밸리, 그랜드캐년, 엔텔로프 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라스베가스

서유럽 11일 ▶ \$3599 ▶ \$3399+항공료

이태리일주 7일 ▶ \$1999+항공료

아주투어는 전일정 초특급 호텔! 새로 지어서 생세없는 파리 풀만 호텔 꼭 확인!
런던 1박(힐튼 or 크라운 플라자) | 파리 2박(초특급 Pullman Paris)
스위스 1박(알프스산 바로 앞! 초특급 호텔) | 밀라노 1박(초특급 호텔)
볼로냐 1박(초특급 호텔) | 로마 3박(로마시내안 머큐어 에르미таж 호텔)

일본 7일 ▶ \$19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 \$11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 \$1199+항공료

미동부 ▶ \$1150+항공료

캐나다동부 6일 ▶ \$1399+항공료

캐나다북부 6일 ▶ \$1199+항공료

튀르키예/그리스+산토리니 ▶ \$1999+항공료

그리스+산토리니 7일 ▶ \$2799+항공료

동유럽/발칸 13일 ▶ \$3299+항공료

동유럽일주 7일 ▶ \$2099+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 9일 ▶ \$2599+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 \$2999+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 \$2499+항공료

이집트/요르단 12일 ▶ \$3799+항공료

이집트일주 10일 ▶ \$3299+항공료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호텔! 대피라미드!

남미 ▶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 \$219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 5일 ▶ \$219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2일 ▶ \$3999+항공료

하와이/마우이 ▶ \$1299+항공료

와이키키 리조트 ▶ \$849+항공료

와이키키 메리엇 ▶ \$1049+항공료

해트 레전드 와이키키 ▶ \$1149+항공료

셰라톤 와이키키 ▶ \$1299+항공료

중남미 ▶ \$1149+항공료

코스타리카 ▶ \$1149+항공료

칸쿤 ▶ \$1100+항공료

로스카보스 ▶ \$1050+항공료

쿠바일주 ▶ \$2999+항공료

파타고니아 15일 ▶ \$11900+항공료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 \$8449+항공료

인도/네팔 14일 ▶ \$4899+항공료

아주 골프투어

하프문베이/하딩팍 3일 ▶ \$1200+수시

코스타리카 7일 ▶ \$1699+항공료

파피힐스/하프문 베이 3일 ▶ \$1200+수시

파라다이스 칸쿤 5일 ▶ \$1899+항공료

한국 SIM카드 스페셜 판매 1달 무제한 통화+데이터+문자 010 번호 부여/서울도착시 개통 요금 \$50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제세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1-800-933-3011

www.usajutour.com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웁, 토렌스, 가디나, 플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가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CST 2052210-10

900만 송이 툴립, 빛자루 비행... 스크린에 펼친 마법

브로드웨이 히트 뮤지컬 리메이크 두 마녀의 우정, 성장 스토리 그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어/ 너와 내가 중력을 벗어나면...”

브로드웨이 역대 흥행 2위 뮤지컬 ‘위키드’(1위 ‘라이온킹’)의 주인공 엘파바와 글린다의 폭발적인 듀엣곡 ‘디 파잉 그레이비티’가 극장 대형 스크린에 상륙했다. 그래미상을 2회 수상한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1)의 ‘돌고래’ 고음이 착한 마녀 글린다 역을 만나 오페라 발성으로 더 높이 날아 올랐다. 뮤지컬 ‘컬러 퍼플’의 토니상 여우주연상(2016) 수상자 신시아



세계적 뮤지컬을 영화화한 ‘위키드’에선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글린다 역, 오른쪽)가 브로드웨이 연가파 신시아 에리보(엘파바 역)와 주연을 맡았다. 작은 사진 속 휠체어 탄 소녀가 엘파바 동생 네사 로즈(마리사 보데)다. [사진 유니버설 픽처스]

에리보(37)는 초록 피부의 서쪽 마녀 엘파바 캐릭터를 완벽히 재창조했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해 전 세계에서 6000만명이 관람한 ‘위키드’가 할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돼 20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했다.

‘위키드’는 미국 작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1995년 동명 소설을 각색한 동명 뮤지컬을 토대로 했다. 『오즈의 마법사』 속 사악한 서쪽 마녀의 숨겨진 과거를 상상한 내용이다. 내년 이맘때 공개할 파트2까지 총 2부작 중 이번 파트1은 남다른 외모 탓에 천덕꾸러기로

자란 엘파바가 다리에 장애가 있는 동생 네사로즈(마리사 보데)와 함께 대학에 가서 마법사의 재능을 깨닫는 내용이다. 티격태격하던 ‘공주병’ 캠퍼스스타 글린다와 무도회를 계기로 절친이 된 엘파바는 글린다와 함께 존경하던 마법사(제프 골드브럼)를 만나러 갔다가 비밀을 알게 된다.

원작 뮤지컬의 작사·작곡가 스티븐 슈워츠가 영화 공동 각본 및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뮤지컬에 없는 신곡 2곡(파트2 수록)까지 만들었다. 제작은 뮤지컬이 앞섰지만, 판권은 영화에 먼저 팔렸다. 뮤지컬이 나오기도 21년 더 걸

린 만큼, 공연장에선 불가능한 영상의 마법을 펼쳤다. 분량도 뮤지컬(인터미션 포함 165분)의 2배다. 파트1만 160분에 달해 “너무 길고, 과도하게 디자인돼는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의 실적을 반복한다”(더 랩)는 혹평도 있지만, “‘시카고’ 이후 최고 뮤지컬 영화”(배니티페어), “장르 팬과 열렬한 오지언(원작 팬)들은 즐길 것”(플레이리스트) 등 낙관이 우세하다.

전 출연진이 촬영 중 라이브로 녹음한 뮤지컬 넘버가 압도적이다. 10살 때 브로드웨이 원작을 보고 인터뷰마다 “글린다 역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그

란데는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따냈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룬 걸 기념해 출연자 크레딧에 본명(아리아나 그란데-부테라)을 넣었다. 인기 넘버 ‘파풀라’부터, 무도회에서 외톨이 엘파바와 함께 춤추는 ‘댄싱 쓰루 라이프’, 긴 금발을 쓸어 넘기는 몸짓, 깃털 같은 춤사위까지 잔망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을 넘나들며 완벽한 보컬을 선보였고, 타고난 코미디 감각을 발휘했다.

에리보는 영국 배우 알렉시아 카딩(2008년 뮤지컬 ‘위키드’)에 이어 엘파바를 연기한 두 번째 흑인 배우다. 영화 속 엘파바가 흑인 여성 특유의 마이

크로 브레이즈(얇게 땀은 머리)를 한 것도 에리보가 요청해서다. 촬영마다 전신(얼굴 포함) 초록 분장에 4시간씩 걸렸다. 특히 에리보는 빛자루 비행와 이어 액션과 동시에 즉석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했다. 이를 위해 리닝머신으로 뛰며 노래하는 훈련까지 했다.

‘세상은 어떻게 적을 악으로 만드는가’라는 원작 주제에 더해, 엘파바가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글린다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법사 마담 모리블(양쯔충)한테 인정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등 성장기 고민을 공감하게 그려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 ‘스텝업 3D’(2010) 등을 만든 존 추 감독이 연출했다. 영국 동부 노퍽에 툴립 900만 송이를 심고, 58t짜리 정교한 기차 장치를 동원하는 등 시각적으로도 호화롭다.

뮤지컬은 국내에서 2012년 오리지널 톱 내한 공연에 이어, 2013년 한국어 라이선스 초연, 2016년 재연, 2021년 삼연을 했다. 영화 디빙판에선 당시 무대에 선 뮤지컬 배우 박혜나(엘파바), 정선아(글린다), 고은성(피에로) 등이 목소리를 연기했다. 극 중 글린다를 좋아하는 대학생 보크 역과 노래이터 역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라데’의 정승원과 진원이 각각 맡았다. 일반 2D 포맷 외에 아이맥스·스크린X·4D·돌비시네마 등 특수관에서 함께 상영한다.

나원정 기자

우승하면 56억원... LPGA 사상 최고 돈잔치 열린다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22일 개막 총상금 153억원, 역대 최고액 걸려 전년 우승자 양희영·유해란 등 출전

우승상금이 무려 400만 달러(약 56억원)다. 지난해 챔피언 양희영은 200만 달러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우승상금이 딱 두 배로 뛰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22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장(파72)에서 열린다. 이 대회 총상금은 1100만 달러(약 153억원), 우승하면 무려 400만 달러를 손에 쥌 수 있다. 이제까지 여자 프로골프 대회 우승 상

금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준우승을 하더라도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받는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단 60명이다. 킷 탈락이 없고, 최하위를 해도 5만5000달러(약 7700만원)가 돌아간다. 워낙 우승상금이 많다 보니 올해 상금왕은 이 대회 우승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7승을 거두면서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넬리 코다(미국)의 시즌 상금 총액은 416만 4430달러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과 비슷하다. 코다가 이 대회에서 우승



유해란

양희영

하지 못한다면 7승을 거두고도 상금왕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6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한국 선수는 11명이다. 유해란(CME 글로벌 포인트 2위), 김세영(10위), 고진영(12위), 최혜진(17위), 임진희(22위), 김아림(25위), 안나린(29위), 양희영(38위), 신지은(42위), 이미향(56위), 김효주(59위) 등이다.

올 시즌 안정적인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유해란과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양희영이 ‘재판’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2020년과 2021년 이 대회 2연패를 달

성했다. 김아림은 지난 10일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임진희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사이고 마오(일본)를 마지막 대회에서 추월할 기세다.

세계랭킹 1위 코다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코다는 두 달 동안 필드를 떠났다가 지난 18일 끝난 더 언니카 드리븐 대회에서 거뜰하게 우승했다. 이미 올해의 선수상을 확정된 코다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시즌 상금 8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쓴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후루에 아야카(일본), 인위닝(중국), 릴리아 부(미국)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고봉준 기자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향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e on the look out for (someone or something); ~를 찾는 중이다

(Lee a student is talking to his teacher Mr. Jones.)

(학생 리가 선생님 존스씨에게 얘기한다...)

Lee: Mr. Jones, may I ask you a question?
리: 존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Mr. Jones: Sure, What is it Lee?
존스씨: 물론이지, 뭔데 그래?
Lee: I want to buy a car.
리: 제가 차를 하나 사고 싶거든요.
Mr. Jones: New or used?
존스씨: 새 것 아니면 중고?
Lee: Used, I can't afford to buy a new car right now.

리: 중고요. 당장은 새 차를 살 능력이 안되서요.
Mr. Jones: How much can you spend?
존스씨: 얼마나 쓸 수 있는데?
Lee: I can go up to \$5000.
리: 5000달러까지 쓸 수 있어요.
Mr. Jones: You should be able to find a good car for that amount.
존스씨: 그 돈이면 좋은 차를 찾을 수 있을 거야.
Lee: Would you ask around and see if anyon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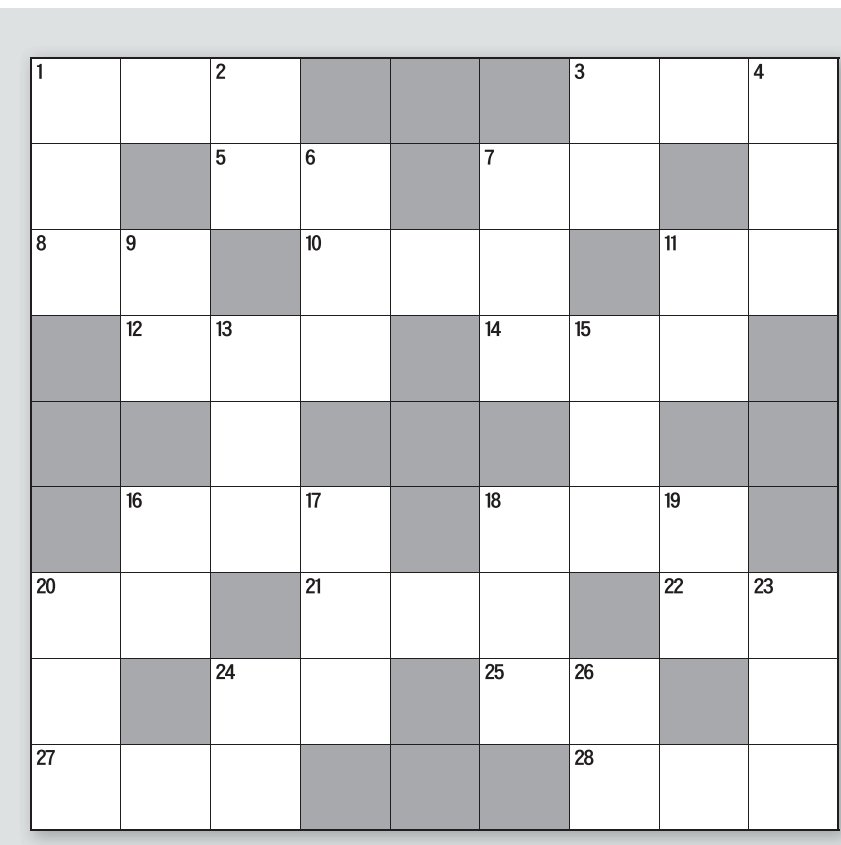
know has a car they want to sell?
리: 선생님 아시는 분 중에 차를 파는 사람이 있는 지 좀 물어봐주실 수 있을까요?
Mr. Jones: Sure, I'll be on the look out for a car for you.
존스씨: 물론이지, 네가 탈 차를 나도 찾아보마.

(1) I can't afford to buy those shoes."
(저는 그 신발을 살만한 돈이 없습니다.)
(2) I can't afford to eat that cake. I'm on a diet."
(저는 그 케익을 먹을 사정이 안됩니다. 다이어트중이어서요.)
▶ go up to ...: 최대한 ~까지 (돈을) 쓸 수 있다
"I want to buy a guitar. I can go up to \$1000."
(전 기타를 사고 싶은데요, 1000달러까지 쓸 수 있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one) can't afford (to) ...: (1)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되다 (2) ~할만한 형편이 사정이 못되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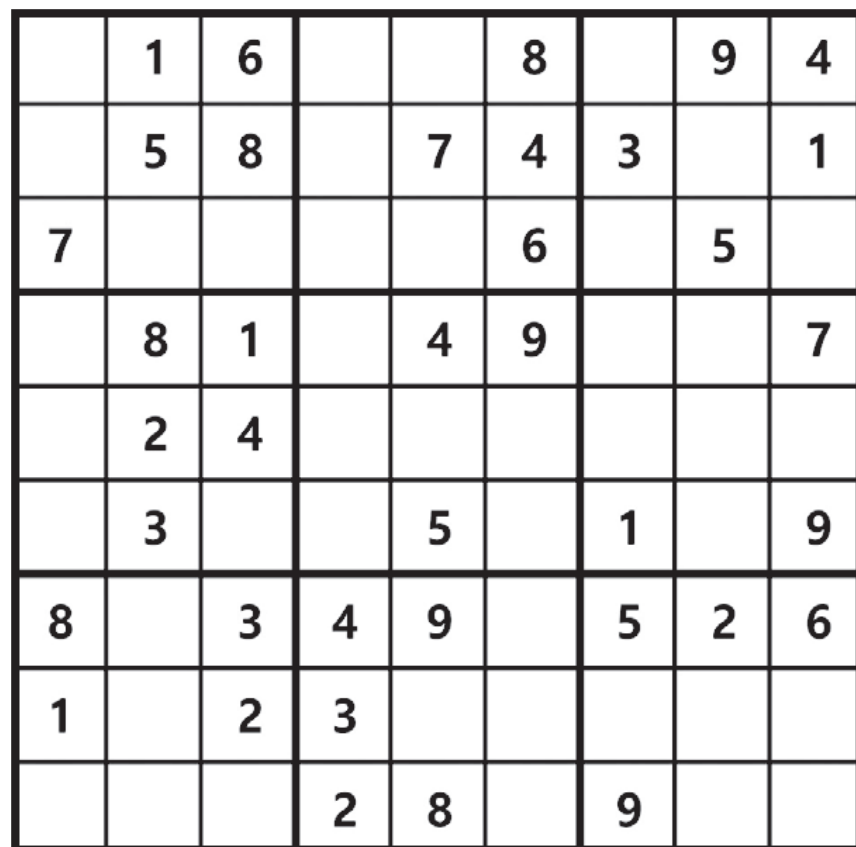
가로열쇠

(1)선박이나 비행기가 항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3)곱셈에 쓰는 기호 공식 (5)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7)남자로 태어난 자식 (8)새로운 종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10)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11)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쇠로 만들며 끝은 뾰족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12)거지.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14)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유리로 칸막이한 호화로운 대형 승용차. 공항의 여객을 나르는 버스 (16)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18)생각이 어려서고 하는 짓이 아무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다시 또 ~처럼 굴면 혼난다 (20)물이나 물 밑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21)음식을 차려 놓고 둘러앉아 먹게 만든 탁자에 까는 보자기 (22)겉손 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24)혼인할 자리 (25)싸리나 대나무 껍질로 울이나 춤이 없이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그릇. 용수가 ~이 되도록 우긴다(역지를 쓴다) (27)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28)물이나 술을 담아서 따르죠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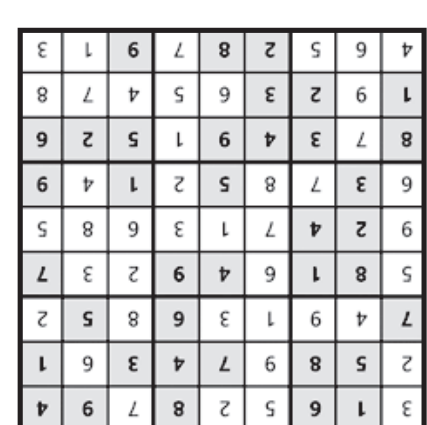
(1)나무를 파서 만든, 진 땅에서 신는 신 (2)소나 염소 따위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3)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온돌에서 방바닥 부분 (4)여성들이 치마 바로 밑에 입던 속옷. 모양은 한복 바지와 비슷하다. □속□ (6)매를 부리면서 매사냥을 지휘하는 사람 (7)판소리에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9)체내의 세포가 자율성을 가지고 과잉으로 발육한 것. 악성 ~ (11)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 (13)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붉은 참빛 모양이다 (15)돈이 한 푼도 없음 (16)외부의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 일성호기가 나의 ~을 울리는구나 (17)편안히 쉴 수 있는 곳 (18)마른 해삼, 새우, 목이버섯, 표고버섯, 닭고기, 죽순, 파, 완두콩 등 여덟 가지 재료에 녹말을 부어 걸쭉하게 만든 중국 요리 (19)사는 곳을 옮김 (20)야구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 (23)양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24)혼인할 때 필요한 물건의 품목 (26)밥을 먹을 때에 곁들여서 한 두 잔 마시는 술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1월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들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침'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핑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20kg 무게 채우고 100%를 흡수함~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1740발/분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 관상동맥 질환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딤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용 매트

2020년 최우수 브랜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공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www.ebluu.com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12개월 동안
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bluu™ Point+



헤어 및 네일살롱



세탁소



럭셔리 레스토랑



푸드 트럭



택시 서비스



배달 서비스

주문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이동성 -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나 쉽게 휴대할 수 있어,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결제 - 다양한 결제 수단 (신용카드, 데빗카드, 모바일 결제 등)을 지원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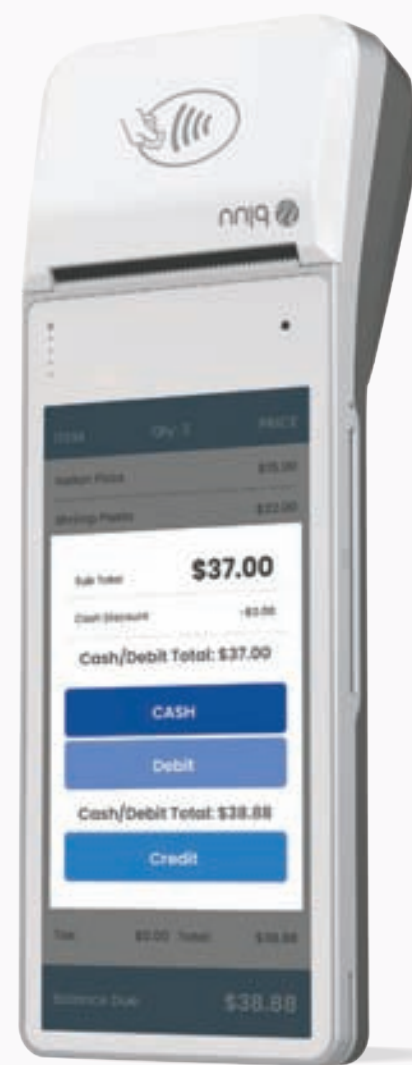
신속한 처리 - 빠른 결제 처리가 가능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비용 절감 - 전통적인 POS 시스템에 비해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Bluu, Inc 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hr@ebluu.com



bluu™ Point+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directsales@ebluu.com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7

11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 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 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볼톤스빌 MD (엘리컷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방2/부엌/화장실 1 1/2/택 \$1,700 1층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홈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홀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 홈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채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펙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월근무) 부가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72@gmail.com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 wkim0111@gmail.com

케어피플 홈헬스 Billing Coordinator (센터빌)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저렴한만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가능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 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중앙일보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급구, 센터빌/첼렌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슈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야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 텍사스도넛센터빌매니저보조구함(아근)

이미용

영주권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렌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렌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엘리엇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렌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너, 준매케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J-1(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 12시~19:30분
240-994-8456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데일.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실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한 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디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 싱글홀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센터빌 타운홀(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홀,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홀,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 / 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301-529-2175

▶▶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교
703-336-3283

▶▶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 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방렌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카펫 없음. 마루바닥.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1150/유틸리티 포함 아침 저녁으로 비어있음 /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 센터빌타운하우스/화장실/파킹장달린집/2층 큰방 917-403-4388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실악가든근처 싱글홈 방1. 화 1. 냉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 한강위 방1/화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홈포워드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아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받고조용한 뒷뜰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 아난데일 한강식당위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웍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킴치,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사무실/점포 렌트

1. 애난데일 콘도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랜들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q. ft.,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kout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1. 센터빌 던컨 뒤 오피스콘도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 /화1 / 큰 오피스사무공간
2.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3.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세일
4. 페어팩스 싱글 -로빈슨이-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 마루, Twinbrook shopping, ▶▶ 571-239-6054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페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동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천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오망)

골동품·이조기구·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킨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어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 571-229-4633

H, 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703-894-720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루핑수리/거러교체
 ◆ 싱크/디스포저 ◆ 사이딩 리페어/창문
 ◆ 워터히터/물새는것 ◆ 데크 수리
 ◆ 하수막힘/변기교체 ◆ 드라이월/페인트
 ◆ 셉텀프 교체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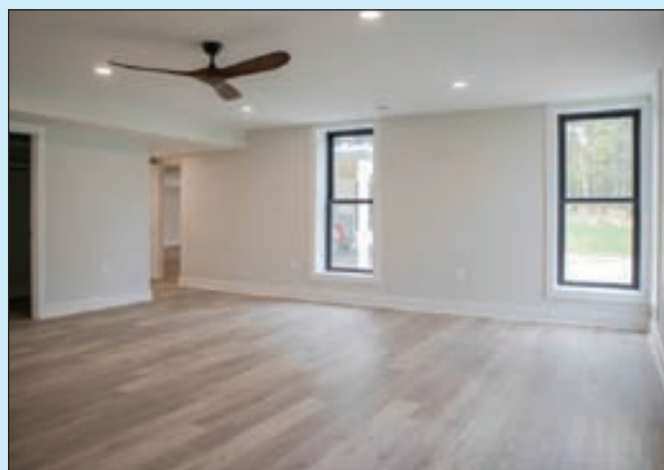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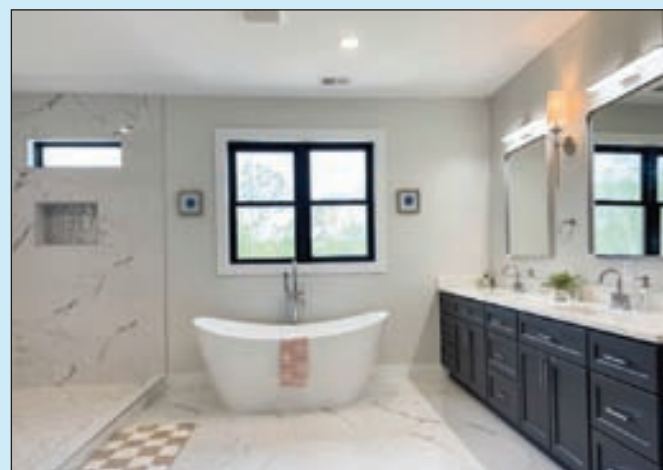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opolis
 미국 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듬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1,700	\$1,200
대(L)	\$4,800	\$2,400	\$1,400
특대(XL)	\$5,800	\$2,900	\$1,800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대한민국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부동의 1위 일월

이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겨울은 책임지는 일월!

ilwoulusa.com 방문하셔서 H10 code로 10% 추가 D.C혜택을 보세요.

가성비 끝판왕!
 탄소 스타일리쉬 워셔블 온열매트 (원난방)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229 쿼인 \$279 더블 \$430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싱글 \$325 더블 \$409 킹 \$498	거실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온돌마루 탄소 카페트 중형 \$350 대형 \$430 킹 \$558	향균·위생 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179 더블 \$209 킹 \$282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09 더블 \$259 킹 \$332	한국 최초 다목적 온열 담요 블랭킷 \$189 → \$159	가성비 최고의 70W 초절전형 온열매트 \$258 → \$165	편리한 쇼파용 미니 온열매트 \$148 → \$95

싱글 \$139 | 더블 \$169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1/2,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관리한 넓고 밝고 환한집

\$659,9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Sold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